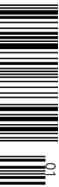




사람 사이 하순회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청년 일터 이야기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문화로 세상 보기 AI 미디어 예술, 창조의 '연장'인가 '대체'인가



ISSN 2671-8731

Contents

JANUARY + FEBRUARY · 2026

시선

과신, 과용하지 말아야 할 도구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기술의 명암과 기독교적 분별력 | 신국원 04

특집

기독교적 AI 리터러시(literacy)를 향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을 생각함 | 순화철 06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AI 리터러시 | 이호수 08

모든 것이 가능하나 다 유익하지는 않다 | 김명주 10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AI 리터러시(literacy) | 김수환 12

그리스도인을 위한 AI 프로네시스(Phronesis) | 최우성 14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품는 기독교 신앙 | 이경건 16

인공지능 시대의 우려와 AI 리터러시 | 김선희 18

AI와 상호작용의 공간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 홍참길 20

기독교적 AI 리터러시를 위한 몇 가지 신학적 기준 | 석종준 22

사람 사이

하순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24

섬김의 자리에서

기독교 세계관적 의료 현장 | 최현일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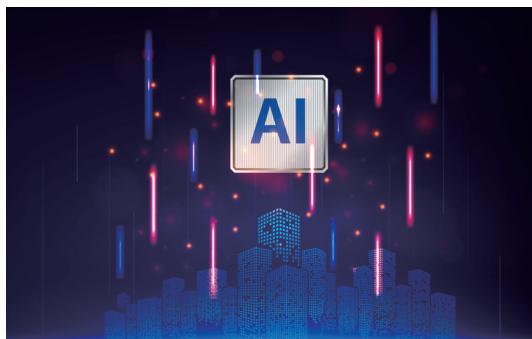


2026. 1+2월호 | 제39호(통권 254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묻는다 : 인생은 무엇인가? 박은찬	30
AI 시대를 신앙으로 읽어내는 일 한설규	32
청년 일터 이야기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송예민	34
존재만으로도 우미향	36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기독교적 AI 리터러시를 고뇌하며 ‘참을 수 없는 해석의 가벼움’ 넘어서기 추태화	38
미술을 보다	
AI 미디어 예술, 창조의 ‘연장’인가 ‘대체’인가 서성록	40
책을 보다	
인공지능과 ‘기술 담론의 허세’ 이상민	42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과학기술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 홍성욱	44
〈기독교와 AI〉에 대하여 남명현	46

교회 路

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북노회 ‘교회학교 교육지도사 양성교육’ 세미나

‘교회학교 교육지도사 양성교육’ 세미나 채일	48
소감문 : ‘교회학교 교육지도사 양성교육’ 세미나 참가자	49

온전한 지성

로타 크라이식의 기독교 세계관(1) :

‘화해를 위한 평화봉사단’ 최용준	50
----------------------	----

소식

사무국/관련기관 소식	52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4



과신, 과용하지 말아야 할 도구

손봉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사람’(homer faber)은 기술을 개발하고 도구를 만들 수 있기에 만물보다 강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까지 인류가 개발한 기술과 도구는 대부분 손, 팔, 다리, 눈, 귀 등 육체 부위들의 활동을 더 강화하거나 대체하는 것들이었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생각의 기능을 보조하는 도구는 수판, 계산기, 컴퓨터 등 소수에 불과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개발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더 넓게, 더 상세하게, 심지어는 더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는 더 잘하게 될 것이라 한다. 최근 한국 대통령을 만난 손정의 회장은 머지않아 인간보다 만 배나 뛰어난 두뇌를 가진 초인공지능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의 지능과의 차이가 지금의 사람과 금붕어의 지능 차이만큼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즈와일(Ray Kurzweil)은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점을 뜻하는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이 2045년에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오픈 AI’ 대표인

올트먼(Sam Altman)은 그 특이점이 이미 왔다고 주장한다.

계시의 종교며 언어적 정보를 다른 어느 종교보다 중요시하는 기독교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까지는 인간만 생각할 수 있었으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의 독특성을 연결시켜 생각해 왔고 심지어 생각하는 능력과 영혼이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도구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익숙해진 인간관이 근본적으로 혼들릴 수 있다. 최근에 상담이나 외로운 노인들의 대화용 챗봇까지 출시되자 인간의 특별한 위상이 혼들리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AI는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에 의하여 통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제어를 벗어나 인간과 대결하는 공상과학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상황은 일어날 수 없고 물론 일어나

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의지, 감정, 주장 등을 표현하는 말을 다 만들어내고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지만 그렇게 하는 자아(自我-'나')가 없다면, 무엇을 주장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지도 느끼지도 못한다. 물론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도 책임도 질 수 없다. 자율자동차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더라도 사고가 나면 감옥에 가지 않는다.

AI의 지능지수가 위낙 높기에 오류나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엉뚱한 대답을 하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AI의 상담을 받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까지 생겨서 제조회사 상대 소송이 여럿 제기되어 있다. AI가 완벽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사람이 제공한 자료(data)에 근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대규모 언어모형’(LLM) AI는 어떤 규모의 것이든 자료센터(data center)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데 모든 자료는 원칙적으로 불완전하다. 자연과학적 자료는 다소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모든 자료는 완벽하지도 않고 객관적일 수도 없다. 물론 제조사들은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만을 입력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많은 자료를 모으면 서로의 오류를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실은 원칙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해석된’ 사실이다. 포퍼(Karl Popper)는 심지어 자연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도 “거짓이 아닌 것이 드러날 때까지만 참”이라고 했는데, AI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거기다가 AI 전문가 윌리슨(Simon Willison)이 지적한 ‘외부 콘텐츠 노출, 사적 데이터 접근, 외부로의 발신 경로’ 등 소위 ‘치명적 삼합’(lethal trifecta)은 AI를 해커들의 좋은 먹잇감으로 만들 수 있다 한다. AI는 완전히 믿을 수도, 안전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AI를 과신하지 않는 지혜가 필

요하다. 특히 청소년들과 젊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AI를 많이 이용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화용 생성 학습 변환기 ChatGPT 출시회사인 ‘오픈 AI’는 13세 이하 청소년들의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고 13세부터 18세까지는 보호자의 허락을 받고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스스로 찾고 배우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거나 비판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과 대화 기회가 줄어들어서 정상적 인격 형성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확증편향이 심해져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AI의 형성, 유지, 사용은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모한다고 한다. 다소 과장되었다는 주장은 있지만, AI에 100단어의 문자를 생성시키는데 드는 양의 전기로 LED 전구 14개를 한 시간 동안 켤 수 있다 한다. 물론 자료를 수집하고 입력하고 보관할 뿐 아니라 계속 더위지는 데이터 센터를 냉각시키는데 막대한 양의 전기가 소모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AI의 과대이용은 삼가야 한다.

AI는 유용하고 강력하지만 오류, 위험, 부작용도 많은 도구이므로 과신도, 과용도 말아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기아대책 이사장을 역임했다. 도산인상,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대 사회봉사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도 섬기고 있다.



기술의 명암과 기독교적 분별력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기술의 명암은 인공지능에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AI의 힘은 빅데이터에 있으며, 이를 언어적 연산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각’(hallucination)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데이터 부페’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근원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기술 그 자체보다도, 기술을 다루는 인간의 왜곡된 욕망과 악용이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선>은 AI를 ‘파신하거나 과용해서는 안 될 도구’로 규정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분명해집니다.

<특집>의 첫 글에서 손화철 교수는 개별 기술이 아니라 기술 전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술 발전이 놓여 있는 삶의 변화 맥락, 활용 방식에 대한 성찰 없는 수용, 경쟁적 조바심 속에서 나타나는 종속과 막연한 두려움이 그것입니다. 현장 최고의 전문가인 이호수 박사는 AI의 능동적 기술을 분별하는 교육이 목회자에 국한되지 않고 성도들 전체로 확장되어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김명주 교수는 AI가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현재의 기술’이 되었음을 지적하며, 어른과 그리스도인이 이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지 이전에 무책임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가능한 것이 곧 유익한 것은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김수환 교수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AI 리터러시

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인공지능의 원리, 활용, 윤이라는 세 영역을 구분해 제시합니다. 최우성 박사는 AI를 잘 다루는 기술적 역량보다 ‘거룩한 단절’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길임을 강조하며, 기술의 편리함에 매몰되기보다 이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실천적 지혜를 요청합니다. 이경건 교수는 AI 기술을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말 것을 권하며, 오래된 근본적 질문을 다시 불드는 태도를 제안합니다.

김선희 교수는 AI가 초래한 직업 세계의 변화 속에서, 그것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해 책임 있게 사용하는 윤리적 리터러시가 모두의 과제임을 강조합니다. 홍참길 교수는 AI가 가져올 인간 상호작용을 성찰하며,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인간됨의 기준을 놓치지 않는 방향 설정을 요청합니다. 석종준 목사는 비판적·기술적·신학적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을 소개하며, 창조론·인간론·종말론의 관점에서 AI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하순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를 만나 기독교적 AI 리터러시에 대한 지혜를 들었습니다. AI 기술은 뇌의 작동 원리를 모방한 기능적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되며, 인간의 존엄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함께 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궁

정적이고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상이 AI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AI는 영성의 영역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성,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결코 대체 불가능하므로 이를 대신하려는 사용 방식은 경계되어야 합니다. 이 기술의 발전은 멈출 수 없기에 거기에 수반된 근본적 문제들에 잘 준비된 교회가 복음을 더욱 온전히 전하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섬김의 자리〉에서는 이사이신 최현일 샘병원 의학원장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의료 현장을 살아낸 경험을 나눕니다. 어머니를 간호하며 시편을 읽어드리던 시간 속에서, 모태신앙의 틀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의 수학 이후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진료가 주는 기쁨을 들려줍니다.

〈청년 시론〉과 〈청년 일터 이야기〉에서 박은찬 형제는 만약 인공지능이 인생은 무엇이냐를 묻는다면 자신은 ‘신의 걸작품’이라는 성경의 답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한설규 형제는 AI 디지털 대전환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는 연구 과정 속에서, 신앙 공동체의 교제가 주는 힘을 중언합니다. 송예민 자매는 극동방송 아나운서와 PD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나누며, 우미향 자매는 성과주의 사회 한복판에서 직장인과 대학원생으로 살아가며 존재 자체로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영화를 보다〉에서 추태화 교수는 성경에 뿌리를 둔 인간 이해가 기독교적 AI 리터러시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미술을 보다〉에서는 서성록 교수가 AI 예술단체 오비어스의 「에드몽 드 벨라드의 초상」 이후 논

의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미술이 창조의 연장인지, 아니면 대체인지를 둘러싼 쟁점을 소개합니다. 〈책을 보다〉에서는 이상민 박사가 자크 앤륄의 〈기술담론의 허세〉를 평하고, 홍성욱 박사는 임준섭의 〈포스트휴머니즘의 전략과 기독교의 대응〉, 남명현 형제는 이경건의 〈기독교와 AI〉를 소개합니다.

〈교회로〉에서는 일산청암교회 채일 목사와 참여자들이 예장 합동측 서울북노회의 ‘교회학교 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교리, 교육철학 등 교회학교 사역에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목회가 취약한 교회를 섬길 혼신된 교사와 지도자를 세워가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온전한 지성〉에서는 최용준 교수가 로타 크라이식의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합니다.

늘 그랬지만, 특히 이번 호와 같이 통찰력 있는 기독교적 안목의 글들을 아무 대가 없이 받아 지면에 실어 되는지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한 이러한 섬김의 정신이, AI가 만들어내는 환상을 분별하는 안목을 형성하는 데 귀한 도움을 줄 것이라 믿으며 감사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편집과 교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을 혼신해 주신 모든 동역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FAITH & LIFE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을 생각함

손화철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교수 / 기술철학 전공)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 3.5가 시장에 나온 지 만 3년이 되었다. 인공지능 연구의 역사가 길고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개발했다지만, 본격적인 인공지능의 시대는 2022년 11월에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 3년 동안 수많은 변화와 사건, 주장이 우리 사회를 훔들었다. 인공지능 교과서가 추진되다가 좌초되기도 하고, 엄청난 예산이 인공지능 개발에 책정되었으며, 주식 시장이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오르내렸다. 보통 사람이 자료를 검색하고 글쓰고 일하는 방식도 변했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빠르고 급격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과연 경험한 적이 있었나 싶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새로운 ‘지능’의 등장이 교회 공동체와 목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발전과 변화, 이해의 규모와 속도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만약 그 지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속도는 오히려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인공지능 자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 문해력(AI literacy)’도 절실하지만, 좀 더 넓은 틀에서 첨단기술의 발전을 대

하는 우리의 태도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술 발전에는 맥락이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 기술은 진공상태에서 개발되지 않는다. 인공지능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장 질서, 정치적 역학관계, 문화적 흐름의 맥락에서 등장했다. 자본이 충분한 빅테크 기업이 인공지능을 만들었고, 그들은 트럼프 같은 퇴행적 지도자와도 별 문제없이 공존한다.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짚고 병든 사람이 줄지 않고 전쟁이 그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악화되는 듯도 하다.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기존의 부조리한 맥락 안에서의 변화다.

물론 기술 발전에 맥락이 있다는 말은 신기술로 인해 우리 삶의 질서가 바뀐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변화의 맥락을 직시할 때에는 기술로 해결되는 문제뿐 아니라 새로 야기하는 문제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한창 발전하는 상황에서 그 놀라운 성능에 흥분하고 기대를 품는 것이 당연하지만, 장밋빛 전망만으로는 부족하다.

둘째, 한 기술의 다양한 쓰임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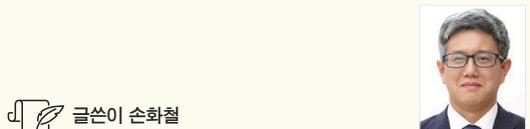
기술을 좀 더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인공지능의 경우 이것이 좀 힘든데,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른바 ‘범용인공지능’을 구현하려 애써 왔기 때문이다. 사실상 모든 영역에 이 기술이 침투하다 보니, 어떤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인지를 알기 어렵다. 그러나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유익한 일이 있고, 무익한 일이 있고, 해악이 되는 일이 있다. 단백질 합성의 수많은 가능성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가상으로 시도하고 확인하는 연구는 매우 유익하다. 인공지능에게 점심 때 뭘 먹을지, 애인에게 뭘 선물할지 물어보는 것은 무해하지만 무익하다. 반면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글을 생성형 인공지능에 반복적으로 맡기는 일은 엄청난 해악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없으면 아무 말도 생각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 말이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려 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를 구별해야 한다.

셋째, 모두가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뒤처지면 평생 패자가 될 것이란 조바심은 거짓임을 간파해야 한다. 사용자 편의를 중시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점점 사용이 쉬워질 것이다. 여러 개의 인공지능을 번갈아 사용하며 이것저것 시도하는 사람은 앞서 나가는 사람이기보다는 호기심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중 몇 개는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고, 몇 개는 구독료를 올릴 것이며, 대부분은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해질 것이다. 그러나 까 지난 3년 동안 인공지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도, 앞으로 3년 후에 인공지능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모두가 사용하는 기술의 ‘전문가’를 특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것은 극소수의 사람이 인공지능을 지배하고 나머지는 종속되

는 상황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술의 발전을 불가피하고 운명적이라 보는 태도는 위험하고 선부르다. 그보다는 특정 기술이 인류를 위해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인공지능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술이라면, 그 발전의 방향을 사기업과 전문가, 시장과 국가에 모두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기술이 좋은 세상, 기독교의 개념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복무하도록 해야 하고, 그 주체는 기술 사회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화려한 성공에 많은 사람이 환호하지만, 그 환호와 놀람의 뒤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많은 경우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처한 현실과 독립적으로 등장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 쓰임새와 효과에 대한 불명확한 기대와 걱정에 빠지거나, 그 발전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접근은 무비판적인 기술 수용이나 이 흐름에 올라타야만 한다는 조바심과 불안으로 이어지기 쉽고, 그 결과 다시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선도할 의지를 무력하게 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다면 인공지능의 발전 자체보다 그 발전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다. 문화명령, 곧 다스림의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가진 무게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FAITH & LIFE



글쓴이 손화철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철학 담당 교수이다. 기독교학문연구회의 한국연구재단(KCI)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으로도 섭기고 있다.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고, 벨기에 루汶대학교에서 기술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근의 관심사는 포스트휴먼과 인공지능의 철학이다. 저서로는 〈미래와 만날 준비〉(책숲, 2021), 〈호모 파베르의 미래〉(아카넷 2020), 번역서로는 〈불평등 의무〉(2016), 〈기술과 불안한 미래〉(2019) 등 다수가 있다.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AI 리터러시

이호수 (전 SK 텔레콤 사장)



세상은 지금 또 한 번 거대한 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 지난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이 우리의 일상과 문화를 뒤흔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생성형 AI의 등장은 인간의 창조성과 지성의 경계를 새롭게 규정하며 사회 전반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교회와 목회 현장이라고 해서 비켜 가지 않는다. 이미 ChatGPT, 제미나이(Gemini), 퍼플렉시티(Perplexity), 클로드(Claude) 같은 대화형 AI들은 목회 영역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고 있고, 이에 대한 이해와 능력은 이제 목회자의 필수적인 자질이 되었다. 바야흐로 'AI 리터러시', 즉 AI의 본질과 한계를 신학적 관점에서 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목회에 지혜롭게 활용하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생성형 AI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가 아니다. 이것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글을 쓰고, 이미지를 그리며, 새로운 음악을 창조해

내는 능동적인 기술이다. 이전 세대가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았다면, 이제는 AI가 스스로 새로운 내용을 '생성'해내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특히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은 질문하고 학습하며 소통하는 과정의 대부분을 이미 AI를 통해 경험하고 있다.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AI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신기술을 배우는 차원을 넘어, 변화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이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선교적 과업과도 같다.

실제로 AI는 목회 현장의 풍경을 바꾸어 놓고 있다. 설교자는 성경 본문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AI를 통해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고, 복잡한 원어 분석이나 다양한 주석가들의 관점을 비교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는다. 설교의 논리적 흐름을 정리하거나 청중에게 와닿는 적절한 예화를 찾는 과정에서도 AI는 훌륭한 조수 역할을 한다. 2025년 12월 1일자 '한국기

'독공보'에 따르면, 목회자 절반(47%)이 ChatGPT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고, 설교 준비와 자료 검색 과정에서 AI를 활용한다는 응답은 87%에 달한다고 한다. 여전히 AI 사용에 유보적인 목회자도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AI를 '설교 준비 도구'로 수용해가는 방향이다. AI는 목회자의 창의성을 보완하고 시간을 절약해주는 비서 역할을 함으로써, 목회자가 설교의 영적 메시지에 더욱 전념하도록 돋는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설교뿐만이 아니다. 교회 행정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 작업이나 주보 제작, 공지사항 정리 같은 소모적인 업무를 AI에게 맡김으로써, 목회자는 그만큼 확보된 시간을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역에 쓸 수 있게 된다. 교육 부서에서는 주일학교 자료나 온라인 성경공부 교재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 선교 현장에서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다양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고 있다.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허덕이던 작은 교회나 선교지일수록 AI의 도움은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중요한 레버리지 (leverage)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토록 편리한 기술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타협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 바로 상담과 심방, 설교와 영적 돌봄은 결코 AI가 대신할 수 없는 성역이라는 점이다. AI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대신할 수 없고, 인간의 고통과 기쁨을 실제로 느낄 수 없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AI는 때때로 신학적으로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목회자는 AI의 응답을 반드시 분별하고 검증해야 한다.

목회자의 AI 리터러시는 성도들을 위한 교육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직업 환경이 바뀌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가는 이 시대에, 교

회는 성도들에게 AI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AI의 파도 앞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어떤 이들은 기술의 등장을 두려워하여 무조건 배척하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무런 비판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한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극단에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

생성형 AI는 교회를 위협하는 적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재확인하게 만드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AI는 그저 도구일 뿐이며, 도구는 언제나 사용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선하게도 악하게도 쓰일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 교회가 중심을 잡고 지혜롭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기술은 시대마다 옷을 바꿔 입지만, 사랑과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전해진다. 교회와 목회자가 AI 시대를 두려움 없이, 그러나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항해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AI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한 새로운 도구가 되고 있다. 그 기회를 지혜롭게 붙잡는 목회자와 교회는 거센 시대의 파도 속에서도 더욱 단단히 서게 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이호수

대한민국 AI 1세대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부를 졸업했고,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석사학위와 미국 노스웨스턴대 컴퓨터공학과(AI 전공)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뉴욕 IBM 워튼연구소 연구원(1985~2005), 삼성전자 부사장(2005~2014), SK 텔레콤 사장(2015~2018)을 역임했다. AI 관련 저서로 『넷플릭스 AI 인사이트』, 『비즈니스 전략을 위한 AI 인사이트』, 『생성형 AI 산업별 활용 트랜드』 등이 있고, 신앙 저서로 『일상에서 만난 신앙』, 『하나님이 궁금하신 당신에게』 등이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다 유익하지는 않다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



2024년 노벨상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보인다. 총 여섯 개 분야 가운데 물리학상, 화학상, 경제학상 등 세 개 분야가 모두 AI(인공지능)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노벨상은 지금까지 인류 사회에 끼친 실제 영향력을 평가하는 상이다. 그런 점에서 AI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다. AI는 이미 '현재 기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AI를 미래의 기술로 인식한다. 그 결과 AI는 여전히 교회 밖 세상의 기술로 취급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2024년 9월, 전국의 수많은 초·중·고등학생들이 딥페이크 성 범죄라는 지옥 같은 현실에 휘말렸다. 아이들에게 AI는 이미 현재의 기술이었고, 그 어두운 면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경험하고 있었다.

2025년 11월, 고려대에서 시작된 온라인 시험 AI 부정 행위 논란 역시 AI에 대한 기성세대의 안이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대학생들에게 AI는 시험의 공정성마저

포기하고 싶게 만들 만큼 강력한 '현재 기술'이다. 이를 어른들만 모르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만 모르고 있다. 그런데 2024년 노벨상 수상자들의 최근 발언을 살펴보면 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토록 강력한 현재 기술인 AI가 결코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경고다. 토론토대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 교수는 딥러닝을 만든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인류는 AI로 인해 그 어떤 기술보다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부작용과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 얻은 혜택의 두 배에 달하는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딥마인드의 CEO 데미스 하사비스(Demis Hassabis)는 AI 알파고를 알파폴드로 전환해, 질병 치료에 핵심적인 단백질의 3차원 구조 예측에 활용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AI로 인한 일자리 붕괴, 이른바 '잡포칼립스(Jobpocalypse)'를 가장 걱정한

다. 하지만 지금 당장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AI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MIT 교수는 <AI 거시경제학 소고>라는 논문에서 AI의 미래를 다소 음울하게 전망한다. “향후 10년 동안 AI로 인해 대체될 직업은 5%도 되지 않을 것이며, 같은 기간 AI가 미국 GDP에 기여하는 비중도 10%를 넘지 못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 비관적 전망의 근거다.

아세모글루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AI는 아직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허위 정보를 만드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현상도 상당히 일으킨다. 검색증강생성(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이나 파인튜닝 같은 보완 기술로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이는 GPT 계열 모델이 가진 태생적 한계다. 더 나아가 AI의 출력은 비결정적(non-deterministic)이다. 동일한 질문에도 언제나 동일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 이러한 재현 불확실성에 보안 취약성까지 더해지면서, 다양한 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AI는 아직 신뢰하기 어려운 기술로 남아 있다.

이러한 노벨상 수상자들의 경고는 현재의 AI가 사용과 활용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기술이 강력할수록 그 어두운 면 또한 비례해 강력해진다. AI 리터러시의 필요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요소가 있다. AI로 인해 변화하는 삶의 방식, 인식, 가치 체계가 과연 성경적 기준과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다. 예컨대 AI는 고인의 디지털 혼적을 학습해 ‘디지털 부활’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지속적 애도 장애’(PCBD)를 겪는 이들을 도울 수 있지만, 동시에 고

인 없는 현실로의 복귀를 자연스킬 위험도 내포한다. 디지털로 부활한 고인은 생전의 직업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어서, 산 자와 죽은 자가 경쟁하는 전례 없는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

갈수록 의인화되는 AI는 전통적인 인간관계와 가족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도 높다. AI가 육체를 갖춘 형태(Embodied AI 혹은 Physical AI)로 발전할 경우, 직장 동료는 물론 비서, 친구, 심지어 배우자의 역할까지 대신할 수 있다. 장차 사위나 며느리가 ‘사람이 아닌’ 시대가 도래하는 것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기독교적 AI 리터러시의 핵심 기준이 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눈 앞에 펼쳐지는 AI 전환(AX) 현상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기준으로 분별하고 해석하며 판단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인간에게 제시하신 가치와 기준에 부합하는지, 윤리적 상상력을 통해 미리 가늠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판단의 결과가 세상의 흐름과 충돌한다면, 구약 심판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처럼, 역류를 선택하겠다는 결단 또한 필요할 것이다. FAITH & LIFE



d 글쓴이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이다. 2024년 11월부터 3년간 파견되어 정부에서 설립한 인공지능안전연구소(Korea AISI) 초대소장을 맡고 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디지털 윤리운동을 지속해왔다. 2018년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윤리’(Seoul PACT)를 개발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여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 대법원 AI위원, 경기도 AI위원, 서울AI재단 자문위원, OECD 인공지능협의체(GPAI)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극동방송에서 <AI공존시대와 기독교인> 컬럼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AI는 양심이 없다>가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AI 리터러시(literacy)

김수환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 컴퓨터교육학 전공)

몇 달 전 출간된 장강명 작가의 <먼저 온 미래>는 AI 모델인 알파고가 바둑계에 미친 영향을 르포르타주(Reportage) 형식으로 저술한 책이다.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¹⁾ 이 책의 부제는 ‘AI 이후의 세계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다.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사범의 대결 이후에 바둑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바둑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들의 변화상을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저자는 바둑을 업(業)으로 하는 프로기사들조차도 자신이 믿었던 바둑에 대한 개념, 이론, 원리, 법칙 등이 다 무너졌다고 묘사한다. 직접 대국했던 이세돌 사범은 자신이 배웠던 바둑은 예술이었는데, AI로 인해 더는 바둑의 목적을 추구할 수 없다고 여기고 알파고 대국 이후 몇 년 지나 은퇴하고 말았다. 현재 바둑계는 AI를 통해 배우고, AI를 통해 분석하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기원에서 배우는 학생들도 AI를 이용해서 학습하고, AI와의 대국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인간 바둑 선생님의 역할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예전에 가르치던 방식이 아니라 AI를 파트너처럼 활용해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장강명 작가는 바둑계의 이런 변화가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소설(글쓰기)계에도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한다.

바둑계에 일어난 변화를 기독교계에 대입해보면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AI가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는가, 방해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AI의 영향으로 인해 일하는 방식이나 일상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피조세계의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AI로 인한 변화도 세상의 예측과 같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AI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Yes, But’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²⁾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으로 AI를 활용하려고 하는지와 더불어 AI 자체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활용법이다. AI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AI 리터러시’라고 한다. OECD에서는 ‘모든 학습자를 위한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는데, AI 리터러시를 ‘AI의 영향을 받는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식, 지속가능 역량,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정의하면서, AI 리터러시를 통해서 “AI를 활용하고, 창작하고, 관리하고, 설계하는 동시에 AI의 이점, 위험, 그리고 윤리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한다.³⁾

국내외 여러 연구를 통해 AI 리터러시의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AI에 대한 이해, 활용, 윤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일반 분야에서의 이런 흐름은 기독교 분야에서도 필요하다. 특히, 성경을 하나님께 말씀인 진리로 믿고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AI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총신대학교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AI 리터러시와 활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필자와 함영주 교수가 함께 협력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인을 위한 AI 리터러시 체계를 개발하였다. 먼저 3가지 대영역을 개념과 원리, 활용, 윤리로 정하고 각 분야의 하위 **요소**와 기독교 세계관적 조망의 내용을 <표 1>과 같이 연결하였다.⁴⁾ 각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참고 도서(신국원 외, 2025)를 참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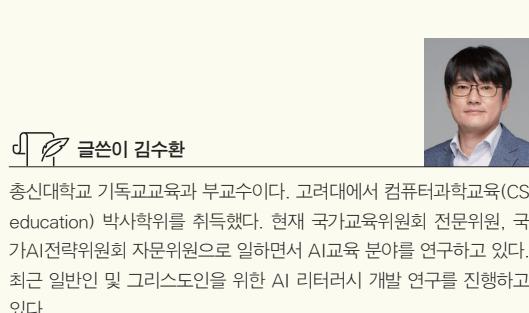
<표 1> 기독교 AI 리터러시 영역과 내용 요소(함영주, 김수환, 2025)

기독교 AI 리터러시 영역	기독교 AI 리터러시 내용 요소	기독교 세계관적 조망
신앙적 인공지능 개념과 원리	인공지능의 개념	하나님의 형상
	기계학습의 원리	인격적 지식과 절대 진리의 추구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	회복된 인간의 창조성
신앙적 인공지능 활용	신앙적 문제해결	문화명령
	기독교 콘텐츠 창작	하나님께 영광과 영혼 구원
	신앙적 사고와 분석	성령의 조명과 성경 중심적 사고
신앙적 인공지능 윤리	신앙적 주체성	성경적 행위주체성과 이웃사랑, 하나님의 통치
	공동체적 책임감과 동역	청지기 의식, 하나님의 동역자
	사회적 영향	영적 분별력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AI가 인간을 앞지르는 특이점(Singularity)의 시기가 2045년이라고 조망하고 최근에는 2029년부터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AI 리터러시를 함양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세계를 만들어야 하는 청지기 사명을 이뤄가야 한다.

FAITH & LIFE

- 1) 장강명. (2025). 먼저 온 미래. 동아시아
- 2) 신국원, 김희석, 함영주, 김수환. (2024). AI의 파도를 분별하라. 익투스.
- 3) OECD (2025). Empowering learners for the age of AI: An AI literacy framework fo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Review draft). OECD. Paris. <https://Alliteracyframework.org>
- 4) 신국원 외. (2025). AI 시대,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음세대를 디자인하다. 익투스.



그리스도인을 위한 AI 프로네시스(Phronesis)

최우성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 'AI프렌즈' 창립 이사)

인공지능(AI)은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왔다. 불이 문명을 열고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것처럼 AI는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난제를 해결할 것 같은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한다. 거부할 수 없는 이 거대한 기술적 과고 앞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의 고유 영역인 사유 능력을 대체하고, 영적 정체성마저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에 올바른 신앙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단순히 AI 기술을 잘 다루는 기술적 능력, '테크네(techne)¹⁾'를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AI 기술을 사용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며 사용하는 실천적 지혜, 즉 'AI 프로네시스(AI Phronesis)'가 필요하다.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넘어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신앙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AI가 주는 가장 큰 유혹은 '시간 때우기 소비'가 아닌 '경험과 생각 아끼기'라는 "압도적인 편리함"이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AI를 능동적으로 활용한다고 믿지만, 실상은 복잡한 사고 과정을 AI에 위탁하는 '인지적 오프로딩(cognitive offloading)'을 겪게 된다. 내비게이션에 의존하기 때문에 길 찾는 법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사유와 성찰마저 AI의 편리함에 맡겨

버릴 위험이 크다. 특히 생성형 AI는 즉각적인 보상을 통해 도파민 회로를 자극하기 때문에 깊고 느린 호흡이 필요한 신앙적 묵상의 가치가 경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의식적인 단절, 즉 'AI 디톡스(AI Detox)'를 넘어서 '거룩한 단절'이다. 기술에 대한 막연한 저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영적 투쟁이다.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능력이 없는 데에서 비롯된다."라고 했다. 외부의 개입 없이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며 깊이 성찰하는 능력이 야말로, AI 기술에 의존하는 '사고의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을 지키는 길이다.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는 '거대 언어 모델'(LLM)은 '사실성'보다 '유창성'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온라인상의 온갖 편견과 오류를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사실을 진실인 양 꾸며내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일으킨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불zap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기독교적 AI 리터러시'를 통한 진실의 분별이 절실하다. 우리는 베뢰아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질문하며, 신앙의 눈으로 정보의 진위를 검증해야 한다. "이 답변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정보에 숨겨진 왜곡은 없는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없는가?"를 묻는 메타인지적 질문이 필요하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AI가 만들어내는 정보의 흥수 속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AI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패턴을 읽는 능력은 탁월 해서 언어로 표현이 가능한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은 이미 인간을 넘어섰다. 그러나 영과 육에 체화되어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은 AI가 결코 흉내낼 수 없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수동적인 언어적 이해가 아닌 성령과의 끊임없는 교제,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적극적이고 실존적인 체험으로 가능하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과 같은 신앙적 경험 또한 AI로는 얻을 수 없다. AI 시대, 그리스도인은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 인격적 교제가 살아 숨 쉬는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한편, AI가 매끄러운 설교문이나 유려한 기도문을 순식간에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죄에 대한 통회, 성령의 감동으로 흐르는 눈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이 부재하다. 편리함과 생산성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복제 불가능한 ‘대면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직접적 체험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AI가 초래 할 사회적 불평등과 윤리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AI는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차별을 답습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제할 수 있으며, AI 활용 능력의 차이가 빈부 격차로 이어지는 ‘AI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적 AI 프로네시스’는 AI 기술이 모든 이웃에게 공정하게 혜택을 주는지 살피는 ‘포용적

1) ‘테크네(techne)’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개념으로, AI 같은 현대기술에서 단순한 도구 사용이 아니라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해 만들어야 하는지를 아는 지식과 능력”을 말한다.

설계’와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AI 기술 소외 계층을 위한 안전망이 되어주고, 기술이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지상명령을 AI 시대에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AI 시대,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로서의 인간이란 존재를 다시금 자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으로 치열하게 사고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조차 알고 리즘에 위탁하게 될지도 모른다. 신학적 고민과 사유의 힘을 AI에게 넘겨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신앙적 사유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의미를 정립하는 근원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 교회와 영적 리더들은 그리스도인들이 AI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표류하지 않고, 능동적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도와야 한다. AI를 단순한 정보 도구가 아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도구로 확장해서 사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기술의 편리함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깨어있는 신앙인’. 이것이 바로 AI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진정한 ‘AI 프로네시스’이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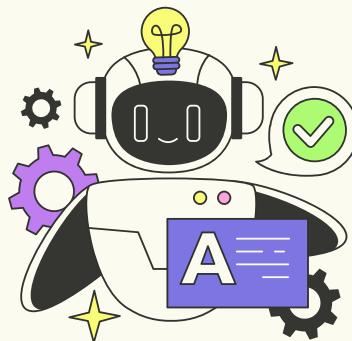
글쓴이 최우성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이다.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서 ‘시스템 고장 예지’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전력연구원’(EPRI)에서 2년간 파견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엔비디아 앰버서더 및 AI 인증 강사, 인공지능 커뮤니티 · 사단법인 ‘AI프렌즈’의 창립 이사이다. 세상에 기여하는 공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연구원이지만 기술보다는 사람을 생각한다. 저서로는 〈에너지와 AI〉, 〈AI의 바른 이해와 사용〉이 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품는 기독교 신앙

이경건 (싱가포르 난양이공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사회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를 접하고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속도가 빠른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들도 있지만, 필자를 비롯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러한 확산 경향에 예외가 되었다. 예컨대, ChatGPT는 2022년 11월 22일 출시된 지 약 2개월 만에 1억 명의 활성 사용자를 확보했다고 알려진다. 이후에 출시된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는 우리가 익히 경험하였다. 그러나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대다수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원리라든지 사용 방법을 간단명료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기독교 신앙이 영원을 지향하는 면이 있다고 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인공지능 현상과 담론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지 숙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짧게나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인공지능 리터러시’(literacy ⇔ 읽기 능력)를 논의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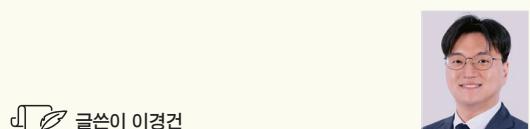
첫째, 인공지능이 인간론적이고 신학적인 함의를 지닌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현대 컴퓨터 및 인공지능의 토대를 놓았던 앨런 튜링(Alan Turing)은 ‘이미테이션 게임’(imitation game)을 제안하였다. 두 개의 방에 인간과 컴퓨터가 각각 들어가 있다고 할 때, 외부에 있는 사람이 방 안에 있는 대상과 채팅으로만 대화를 나누어 무엇이 인간이고 무엇이 컴퓨터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컴퓨터에게 지능이 있다고 보자는 것이다. 이처럼 인공지능 프로젝트는 그 시작부터 인간에 대하여 기능론적인 관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후 몇몇 학자들은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지닐 뿐 아니라 로봇이라는 몸체까지 지니는 인공지능이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기능론적으로 뛰어난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및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가운데서 경험되는 사랑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만이 여전히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아

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가르침을 청하기 위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요 3:10).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땅히 하늘의 일, 땅의 일,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일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3:12-13). 이러한 시선으로 인공지능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은 우선 인공지능을 과대평가하지 않기 위해 그것이 땅의 일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하늘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와(마 6:10)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딤전 2:5)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인공지능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것이 현대에 이루어지는 땅의 일들 중 가장 현저하게 눈에 띄는 현상임을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 이후에라야,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일 중 하나인 인공지능을 하늘의 일 및 하늘과 땅을 잇는 일과의 연관성 하에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공지능 시대에 질문할 뿐 아니라 답을 해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인공지능에게 잘 질문하고 그로부터 답을 얻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명제에 반대한다. 과학 철학자 힐러리 퍼트남(Hilary Putnam)은 과학주의를 비판하며 “철학이 질문하고 과학은 답한다.”라는식의 구도가 결국엔 철학의 자리를 소멸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퍼트남이 이러한 논지를 펼치며 겨냥한 과학주의의 상징이 실은 인공지능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인간이 질문하고 인공지능은 답한다.”라는식의 구도는 결국엔 인간의 자리를 소멸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보다 “우리는 왜 사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인공지능으로부터 답을 얻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

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 시대를 아울러 교리문‘답’의 형태로 신앙 교육의 표준을 세워 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첫 항목이 대표적이다. “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요긴한 것 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통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의 모습 외의 무엇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읽고, 그리스도로 세상을 읽어낼 세계관적 안목을 갖추며,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으면 족한 것이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섬기던 상관에게 오해를 사 감옥에 갇히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와 자신의 인생을 읽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제서야, 크게 근심하며 자신에게 질문을 가져온 술 관원과 떡 관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읽어내야 할 것이 인공지능이든 혹은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요셉이 하였던 것 같은 고백과 이웃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창 40:8). FAITH & LIFE



글쓴이 이경건

싱가포르 난양이공대학교 자연과학 및 과학교육과 조교수이다. 서울대학교에서 화학교육(이학사) 및 컴퓨터공학(공학사)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과학교육학으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조지아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서울대학교 재학시절 서기연(서울대기독인학생연합) 대표, 기대모(기독대학원생 모임) 대표로 섬겼다. 저서로 〈AI와 과학교육〉, 〈기독교와 AI〉 등이 있다.

인공지능 시대의 우려와 AI 리터러시

김선희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 교수 / AI 융합교육학과 겸무 교수)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혹은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시연(구현)한 것”¹⁾을 의미한다. ‘2023 MIT 기술 보고서’(MIT Technical Review 2023)는 현대 사회의 특징으로 ‘AI 모든 곳에’(AI Everywhere)라고 하여 AI가 이미 우리 삶 속에서 ‘환경’ 혹은 ‘인프라’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 혹은 인프라로서의 AI가 최근 일반인에게 대중화된 것이 바로 LLM(거대 언어 모델, Large Language Model)이다. LLM은 “기존 데이터의 패턴과 구조를 학습하여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코드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²⁾인 생성형 인공지능 가운데 언어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이다. 대표적인 LLM으로는 오픈AI의 ChatGPT, 구글의 제미나이(Gemini), 앤트로픽(Anthropic)의 클로드(Claude), 그리고 딥시크(DeepSeek)의 딥시크 등이 있다.

한편, 인공지능 분야의 3대 거장으로 제프리 힌튼

(Geoffrey Hinton), 얀 르쿤(Yann LeCun)과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가 있다. 이 세 사람은 딥러닝 기술의 개념적 · 공학적 토대를 마련한 공로로 2018년에 공학에서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튜링상을 공동 수상하였는데,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관점이 서로 매우 다르다는 것이 일반인들을 당황하게 하는 지점이다. 먼저 제프리 힌튼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재직하다가 구글에 영입되어 인공지능 연구를 한 사람으로, 2024년에는 물리학 분야에서 딥러닝 연구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아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그런데 그는 오픈AI의 LLM이 출시된 후 구글에서 사임하면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경고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며 자율적으로 판단할 위험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정보 생태계, 사회구조, 군사시스템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강력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르쿤은 이러한 힌튼과는 대척점에 있는 낙관론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재 AI는 목표·욕망·의지가 없는 시스템으로 힌튼과 같은 위험론은 과장이며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즉, 인공지능 자체의 위험보다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오용이나 편향, 혹은 잘못된 규제에 대하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에 대한 강한 규제는 기술적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벤지오는 르쿤보다는 힌튼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AI가 초지능(suprintelligence)을 갖게 되는 것은 가능하여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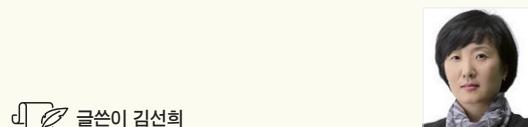
비가 필요하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협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ChatGPT나 제미나이를 사용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선 것을 실감하고 열광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공지능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우려가 많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빅테크 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에 의하여 많은 인원이 해고되었다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올해 5월에 6000명, 7월에 9000명을 감원했고, 아마존의 경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1,000명이 감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기사는 뉴욕타임스를 인용하면서 아마존이 2027년까지 미국 내 16만 명, 2033년까지 추가로 60만 명에 달하는 고용을 자동화 기술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빅테크를 시작으로 전 직업군에서 감원이 발생하고, 신입 입사자 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경제포럼(WEF) 등 여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AI로 인하여 변

화한 환경에서 새롭게 많은 직업군이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AI 및 데이터 중심 직업, 자동화 및 로봇 관리/보수, 디지털 교육/헬스케어, AI 기반 창작, 사이버 보안 및 위험 관리와 관련된 직업군들이 포함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사라지는 일자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훨씬 작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으며,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의 입장에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AI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해하고, AI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책임 있고 윤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AI를 이해하는 능력', 즉 'AI 리터러시'가 필수적이다. 이를 단순히 개인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역량으로 보지는 않아서 정부 차원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교회에서도 'AI 리터러시'를 교회 안으로 가볍게 개념을 들여오기보다는 이를 성경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혹은 일반인의 삶에 적용해야 할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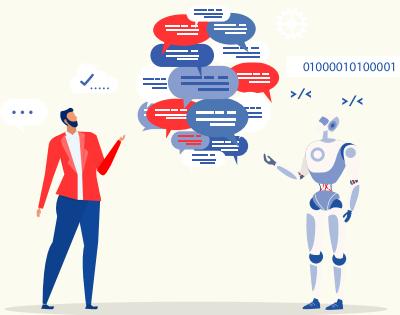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 교수 및 AI융합교육학과 겸무 교수이다.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연구원(EHESS) 언어학 박사를 받았다. UCLA 방문 교수, KAIST와 광운대 연구교수, 연세대 강사, 네이버 인공지능센터 수석연구원을 역임했고 파파고 및 클로바 개발에도 참여하였다.

1)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2)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AI와 상호작용의 공간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홍참길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교수)



ChatGPT, 제미나이(Gemini), 클로드(Claude)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리는 일상의 거대한 재편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삶을 구성해온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상호작용’(interaction), 곧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던 상호작용의 공간이 변화하고 있다. 동료,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상사와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형성해온 그 간극에 이제 새로운 존재가 등장한 것이다. AI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제공하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우리의 사고와 표현, 시간 사용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상호작용의 방식 자체가 새롭게 정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는 상대가 AI”라는 말도 그리 낯설지 않다. AI는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는 교사이고, 때로는 생각을 정리해주는 동료이며, 우리의 일정을 챙겨주는 비서가 되었다. 인류는 스스로 만든 피조물과의 상호작용 비중이 인간 간의 상호작용만큼 커지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생소한 것은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산업계

와 학계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을 더 자연스럽고 포용적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왔고, 생성형 AI는 그 흐름이 또 다른 정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최신 장면일 뿐이다.

‘상호작용’ 연구에서 중요한 관찰 중 하나는 사람의 성향과 인격이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난다는 점이다. 우리가 기계에 입력하는 말투와 선택, 반응 패턴은 단순한 기능적 조작이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자아의 표현으로 읽힐 수 있다. 클리포드 나스(Clifford Nass)가 제시한 CASA(Computers Are Social Actors) 패러다임은 인간이 기계를 단순한 도구로 인식하면서도 실제 상호작용에서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회적 규칙과 감정을 그대로 투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는 생성형 AI와의 대화 역시 가치 중립적인 기술 사용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의 성격과 윤리적 판단이 드러나는 사회적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술의 문제를 넘어, 그 상호작용의 자리에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는 신

학적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끊임없는 관계와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기도와 묵상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공동체 안의 관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AI와의 상호작용이 중립적 공간일 수 없다. 인간의 말과 선택이 드러나는 그 자리 또한 하나님께 보고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코람 데 오’(Coram Deo)의 질문은 전통적 인간관계를 넘어, 새롭게 열리고 있는 디지털 상호작용의 공간으로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최근 대학가에서 보고되는 AI 기반 시험 부정행위는 우리가 새로운 상호작용 공간을 다룰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징후다. 개인의 편의를 위한 부정행위를 넘어, 연구 논문에 생성형 AI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도록 유도하는 지시문을 몰래 삽입해, 학문적 평가 과정을 왜곡하려는 시도도 드러나고 있다. 더 나아가 AI로 생성한 페이크 뉴스를 유포해 타인을 모욕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례들까지 등장하면서, 문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적 담론의 신뢰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상업적 속도로 확장되는 AI 생태계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지식 생태계와 공론장을 동시에 혼란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혹과 위험을 제공한다. 기술의 속도가 인간의 윤리적 숙고를 앞서갈 때,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무는 이 지점에서 더 욱 분명해진다. 기술 발전을 무조건 긍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이 어떤 기준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신앙은 기술 사용의 주체가 되는 인간이 윤리적 판단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돋고, 공동체 안에서 합

의된 기준과 질서를 형성하도록 요청한다. “인격이란 어둠 속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Character is what you are in the dark)라는 무디(D. L. Moody)의 말은 오늘의 기술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제공한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AI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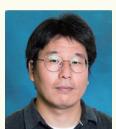
성경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히 4:13)라는 말씀이 나온다. 이는 우리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공간은 없다는 선언이다. 그렇다면 AI와의 상호작용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언어와 욕망, 선택과 동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을 구성한다. 기술은 변해도 인간은 여전히 ‘코람 데오’의 존재이며, 그 사실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의 기준을 제시한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AI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서 그칠 수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물음은 “AI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이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우리는 AI와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언어와 선택, 태도를 외면할 수 없다. 기술이 인간을 둘러싼 시대일수록 이 질문은 신앙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요청되는 성찰이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 위에서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인간됨의 기준을 놓치지 않는 방향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흥참길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부교수이다. 한동대학교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의료 인공지능, 이상점 검출, 산업 및 사회 안전을 위한 예측적 관제 등 사람의 삶과 공동체의 유익을 향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동AI연구실’(HAIL, Handong AI Lab)을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와 인간의 상호작용, 기계학습과 윤리 문제 등 기술 발전이 신앙과 사회에 던지는 질문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기독교적 AI 리터러시를 위한 몇 가지 신학적 기준

석종준 (서울대 기독대학원생모임 지도목사)

나는 2017년 어느 날 서울대 사역의 후원자이신 통계학과 이영조 교수님과 함께 막 개봉한 영화 <공각기동대>를 보러 갔다. 그리고 신체가 대부분 기계로 대체 된 등장인물을 소재로 한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를 계기로 여러 근미래 영화들을 찾아보았고,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서의 인간에 관한 정통 기독교 담론이 안전한가?”를 진지하게 묻게 되었다. 2022년에는 ‘대학원생 북클럽’에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함께 AI(인공지능)와 인류의 미래를 다룬 존 레녹스(John Lennox)의 책 <2084>를 매주 한 챕터씩 읽고 토론하던 중, 그 기간 출시된 생성형 AI, ChatGPT 3.5로 고무되었다. 이듬해 2월에는 ‘그리스도인 인공지능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서울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기독대학원생들이 함께 하는 1박 2일 북콘서트를 섬기면서, 책 나눔과 전문가 초청특강을 통해서 큰 자극을 받았다. 마침내 ‘AI와 기독교의 관계’라는 논제가 신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오랫동안 조직신학 겸임교수로 출강하던 침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두 학기 동안 ‘AI와 기독교’라는 강의를 개설하여 강의하기도 했다.

AI는 이미 인간의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AI는 대학입학, 회계사, 의사, 변호사 자격시험의 영역을 대부분 정복했다. 이른바 AI의 멀티모달(Multimodal) 역량은 텍스트, 이미지, 소리를 동시에 보고, 읽고, 듣고, 해석하고 종합하며, 인간 영역이라고만 생각했던 창작의 세계, 즉 이미지, 디자인, 작곡, 동영상 제작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 대학의 거의 모든 전공에서 AI는 교수와 학생들에게 익숙한 동반자가 되었다. AI를 활용한 생명과학, 로봇공학, 나노기술은 불치병에 대한 신약개발, 손상된 지체복원, 훨씬 정교한 의료 행위, 휴머노이드 비서 등에 엄청난 기대를 선물했다. 2024년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자들이 모두 AI 연구자들이었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은 최근 이러한 AI 과학기술의 발전을 논하기에 유용한 담론의 장(field)이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의미가 있다.

첫째,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포스트모던 해체 철학에 기반을 둔 인문학자들이 휴머니즘(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휴머니즘의 부산물로 해석되는 ‘경계’ 이데올로기의 해체, AI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동된 인간의 미래를 사유하고 논하는 활동이다. 대표자로는 캐서린 해일즈(Katherine Hayles), 로지 브래도티(Rosi Bradotti), 스테판 조르크너(Stefan Lorenz Sorgner), 프란체스카 페란도(Francesca Ferrando), 시몬 비그날(Simone Bignall) 등이 있다.

둘째,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진화론과 과학주의 낙관론에 기반하여, 주로 과학자 출신이 주도하고 있는 입장, 즉 AI 과학기술의 발전 결과로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현재 자연적 인간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종으로서의 ‘포스트휴먼’(Posthuman)의 가능성을 논하는 활동이다. 대표자로는 한스 모라벡(Hans Moravec), 맥스 테그마크(Max Tegmark), 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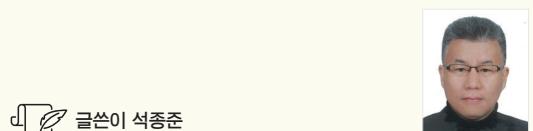
이 커즈와일(Ray Kurzweil), 닉 보스트롬(Nick Bostrom), 맥스 모어(Max More) 등이 있다. 그중 커즈와일, 보스트롬, 모어 등은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 담론의 주창자이기도 하다.

셋째, ‘신학적 포스트휴머니즘’은 AI 과학기술의 도전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과 상술한 두 가지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대안적 담론을 모색해 온 신학자들의 활동이다. 각자의 여러 저서와 논문으로 왕성히 활동해온 대표자는 데렉 슈어만(Derek Schuurman, 개혁주의), 노린 헤츠펠트(Noreen Herzfeld, 가톨릭), 테드 피터스(Ted Peters, 루터교), 브렌트 워터스(Brent Waters, 감리교), 존 레녹스(성공회), 제이슨 테커(Jason Thacker, 침례교) 등이다. 이들은 신학자라고 해서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 차별과 억압이 없는 세상을 함께 지향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기도 한다. 다만 이들의 담론은 모두 하나님과 창조의 질서 위에서, 인간과 모든 존재(기계, 동물 등) 사이의 관계를 해석한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새롭게 도전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에, ‘기독교적 AI 리터러시’의 구체적인 안내를 위해서는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AI 과학기술은 기대의 측면 못지않게 우려의 측면도 크다. 딥페이크 범죄, 정보와 여론 조작, 왜곡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편향, 감시사회의 가속화, 일자리 감소, 불평등 심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가능성 등. 한마디로 AI는 인류에게 양날의 칼이다. 이것은 포스트휴머니즘의 다수 비기독교 전문가들 역시 이미 잘 인지하고 있다. 문제의식도 공유되며 해결을 위한 제안도 면밀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냥 ‘AI 리터러시’가 아닌 ‘기독교적 AI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는 세상 담론의 질서에는 여전

히 인간의 죄성과 타락의 무게를 과소평가하는 오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적 AI 리터러시’를 위한 최소한의 신학적 기준을 몇 가지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론.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 ‘하나님-인간-다른 피조물’은 ‘창조의 질서’이며 그 경계는 선한 것이다. 만든 자가 주인이라면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AI는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전 10:31).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질서와 경계가 근대의 오용처럼 차별과 억압의 명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둘째, 인간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창 1:26). 인간만이 내재적 삼위일체처럼 충만한 사랑의 인격적 관계 역량을 가지고 있다(허츠펠트, 칼 바르트, 위르겐 몰트만). 따라서 인간과 AI의 경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그 정체성을 상호 대체될 수 없다. 셋째, 종말론. 진화론과 과학주의에 기반한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의 불치병, 훼손된 지체, 수명의 한계 문제 등을 장차 과학기술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며, 그 실현의 분기점을 ‘특이점’(singularity)으로 명명했다.(커즈와일).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완전한 구원은 결코 없다. 그 구원은 인간 스스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인간 신’(Homo Deus)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된”(요 1:14) 예수님 뿐이다.(레녹스). FAITH & LIFE



글쓴이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이이다. 서울대 기대모(기독대학원생모임) 지도목사, 서울대 기독학생 북클럽 지도목사로 있다. 지난 30년 동안 여러 지역교회와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줄곧 섬겨왔다. 침신대에서 공부했고(종교철학, Ph.D), 서울대학교 목사, 침신대 조직신학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및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기독교적 AI 리터러시(literacy)를 향하여 하순회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AI(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인간의 단순한 도구를 넘어, 문화와 생활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궁금해한다. 따라서 <신앙과 삶>(1+2월호) '사람 사이'는 현재 우리나라 최고 AI 전문가 중 한 분이자 지역교회(낮은마음하나교회) 사역자이기도 한 하순회 교수님(서울대 컴퓨터공학부)과 인터뷰를 통하여 '기독교적 AI 리터러시(literacy)'를 향한 혜안을 얻고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인터뷰어 : 김건우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

일시 : 2025년 11월 27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대학교 컴퓨터연구소 연구실(316호)



김건우 교수님, 우선 AI를 연구하시는 학자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즘 근황이 궁금합니다.

하순회 저는 정년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AI 기술이 빨리 발전해서 계속 공부해야 하니까 여전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도 있어요. 요즘은 AI가 여러 가지를 편하게 해줍니다. 여러 일을 훨씬 효율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니까 기술 발전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요. 또 현재 저는 '낮은마음하나교회'의 전도사로도 섬기고 있어요. 34년 전 평신도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인데, 처음부터 같이 했고, 이제는 사역도 합니다.

김건우 현재 AI는 대학의 거의 모든 전공에서 다루어지고, 또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든 연결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자로서 예상하셨는지요.

하순회 예상 못 했습니다. 제가 81학번인데요. 당시 유학 갈 때 컴퓨터 전공자들은 AI 분야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1990년대 중반쯤 돌아왔는데, 그때는 AI가 기술로서는 거의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AI 겨울'은 오래 지속되었지요. 그러다 2012년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진과 이미지를 보고 기계가 무슨 물체인지, 개와 고양이 등을 맞추는 경진대회가 있었는데요. 202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تون(Geoffrey Hinton) 교수팀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합니다. 저는 본래 전공이 임베디드(embedded) 시스템 분야였는데, 2017년 이후 임베디드 시스템에 쓰이는 AI 연구에 본격적으로 집중했고, 이렇게 결국 생각보다 훨씬 빨리 AI 기술이 발전하는 세상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AI와 지금 AI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AI는 일종의 수학 같아요. 수학을 알아야 물리학도 하고 공학도 하는 것처럼, 이제는 AI를 알아야 이것저것을 할 수 있지요. 오늘날 AI는 거의 모든 분야에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건우 우리가 ‘리터러시’(literacy)라고 하면 흔히 문해력, 즉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AI 리터러시’는 여기에 ‘활용하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일반 AI 리터러시’와 ‘기독교적 AI 리터러시’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하순회 저는 우선 AI 기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과학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 보셨겠지만, ‘바이오미메틱스’(Biomimetics)라고 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흉내 내거든요. 가령 도마뱀이 벽으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관찰하고 연구하지요.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인간의 뇌란 말이에요. AI라는 학문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그것을 흉내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AI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단순히 어떤 기능을 행하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 AI 리터러시’는 단지 기능 면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본다면, ‘기독교적 AI 리터러시’는 사람의 존엄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건우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 AI 리터러시’와는 별도의 ‘기독교적 AI 리터러시’ 안내가 반드시 더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순회 저는 AI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창조의 능력, 즉 뭔가 만들고자 하는 능력의 연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서

시작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연구하는 거지요. 저는 기능적인 면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 사회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AI 기술이 우리 교회 사역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잘 쓸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은 어떤 기술이든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확 달라집니다.

김건우 현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시급히 갖추어야 할 AI 리터러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하순회 우선 세상이 AI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계관하고 비슷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AI 기술을 자기들 세계관을 갖고 발전시키고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아야 하니까 이 차이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지요. 또 AI 활용에서 AI가 어디까지 하고 인간이 어디까지 할지 영역을 분명히 나눌 필요도 있습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AI를 더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인데요. 이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저는 최근에 챗GPT하고 제가 다르게 이야기했다고 저와 논쟁하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논리는 챗GPT가 전 세계 모든 지식을 다 모은 것이니 저보다 더 권위가 있지 않느냐라는 식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챗GPT는 데이터 모음일 뿐 책임도 안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의지해 버리거든요. 그 위험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AI를 이용하고 의지할 것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분별할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건우 우리가 교회나 공동체에서 ‘기독교적 AI 리터러

시'를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하순희 우리의 다음 세대는 AI 세대인데, 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도 AI를 잘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AI 리터러시는 기성세대, 특별히 교역자들도 모두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은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밑바닥에 깔린 세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계관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으면 자꾸 과학기술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것은 결국 세계관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생성형 AI가 나와서 사람들 이 점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또 성경 해석도 AI가 할 수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해석하면 오히려 더 혼동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김건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AI 기술을 사용할 때, 경계해야 할 금지선 같은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순희 AI는 굉장히 쉽게 기능적인 면에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AI가 영성에는 전혀 관여 할 수 없지요. 물론 영성을 흉내 낼 수는 있어요. 기도 문이나 설교 메시지 작성,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 가운데서 나와야 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인데, 편리하다고 AI에게 기도문 작성을 시킨다든지 설교 주제를 좀 잡아달라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론 이러한 유혹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AI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사람을 앞설 수 있고 사람 을 대체할 수 있어요. 하지만 AI는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서 오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결국 관계 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기본적인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고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

에서 오는 것인데요. AI의 기능적인 면은 그것을 결코 대체하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AI 시대에 그런 관계성의 산물을 AI로 대체하려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챗봇이나 휴머노이드 등으로 관계성의 욕구를 대신 해소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AI를 그냥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편하지만, 인간의 진정한 본질에 해당하는 사랑의 관계성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AI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하지요. AI로 기도문도 대체하고 성경 해석도 대체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을 대체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옛날 같았으면 사전을 찾고 열심히 구글링하고 도서관 가고 할 것을 지금은 그냥 물어보면 답을 다 주니까 그런 노력은 확실히 줄어들었거 든요. 사실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ChatGPT에 물어보면 히브리 성경에서 어느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 자세히 설명해 줘요. 저에게 원어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어떤 것을 할지는 여전히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것 인데 잘못하면 그것까지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AI가 친절하게 “설교문도 만들어 드릴까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묵상하고 기도해서 나와야 되는 결과물인데 AI가 이것을 대체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김건우 AI 연구자이시지만, 동시에 교회에서 사역자로도 섬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AI 기술을 사용하는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순희 AI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엄청 효율적이어서,

저는 교회에서 행정 업무, 자료 정리, 문서 작성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그렇게 업무는 줄이는 게 맞고 대신에 사역자들이 얻는 시간에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니까요. AI 기술을 잘 이용하면 복음을 전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되게 잘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어 문제는 문제도 아니게 되었거든요. 요즈음 AI로 동시 통역도 되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에는 언어권이 다른 곳은 잘 못 갔는데, 앞으로는 갈 수 있게 되겠지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에너지를 더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사람은 일종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고 AI는 지휘를 받는 단원 역할 같은 게 되는 것이지요. 한계라고 하다면 사람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메시지를 직접 전해야 하는데, 이제는 오히려 ChatGPT에 의존해서 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이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건우 교수님은 컴퓨터과학자로서, AI와 공존하는 시대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하순희 AI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아무도 못 막을 거예요. 제가 볼 때 SF 영화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그리 밝지가 않아요. AI에 업혀 가게 되면은 점점 전쟁 위험도 더 커질 것이고 또 사람의 힘에 대한 갈망으로 AI를 힘을 추구하는 도구로 계속 사용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실 수도 있겠구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가 핑크빛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AI는 분명 세상을 많이 바꾸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의 직업과 진로를 위한 교육을 어떻게 준비시킬지 고민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또 저는 AI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소외감을 더 많이 느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인간다움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살지 하는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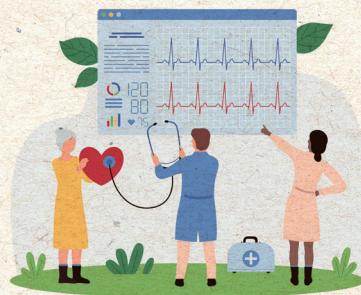
민도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잘 준비해야죠. 이것이에 잘 준비된 교회가 어쨌든 복음도 더 잘 전할 것이고 사람들을 더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저는 앞으로 교회 안에 사랑의 관계성 강화를 위해 계속 소그룹이 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차원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무엇을 같이 하면서, 이것이 일상의 신앙생활과 분리되지 않도록 교회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AI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 사이의 섬김 영역을 강화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AI로 대체될 수 없는 영역을 더 잘 키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우 AI와 공존하는 시대를 살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순희 AI는 일종의 도구예요. 예를 들어서 칼은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편리할 수도 위험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하면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AI를 악마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불행히도 세상이 AI를 악마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사람의 욕구나 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이용해 왔거든요. 반면에 저는 그리스도인이 AI 기술이 얼마나 잘 사용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쪽의 대안은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내면과 공동체에 대한 갈망,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런 것들을 위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 신앙 공동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AI를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도덕적인 판단에서 너무 의지하면 큰일 나니, 이것을 특별히 경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적 의료 현장

최현일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의학원장 / 동역회 이사)



2003년도 4월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이라크 전쟁을 진행하여 사담 후세인 정권의 중심인 바그다드를 점령하였다. 또한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99.99%의 정확도로 인간 유전체 전체를 해독하며 공식적으로 완료되었다. 그때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조교수로 있던 나는 의과대학 교수직과 이별을 고하고, 캐나다 밴쿠버로 날아가고 있었다. 세계는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희망적인 연구결과로 총천연색이었지만, 나는 약간 회색빛의 마음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노란색 희망으로 밴쿠버를 향했다. 밴쿠버에는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대학원'(VIEW, 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이 있었다. 나의 최종 목적지였다.

2001년도에 어머님의 말기 간암 진단을 알게 되면서, 나는 자식이 의사인데 말기 암이 되도록 알지도 못했다는 자책감과 더 이상 시도할 치료가 없다는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슬펐다. 많이 슬펐다. 입원하신 어머니의 여명이 두 달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기간 동

안내가 어머니께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항상 말씀 듣기를 좋아하시던 어머니께 시편을 읽어 드리기로 하였다. 하루의 진료와 수술이 끝나고 퇴근하여 어머님의 병실에서 나는 시편을 읽어 드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 이상하게도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나는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하였고, 모태신앙의 틀을 벗어나 진정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나에게 육신의 첫 생명을 주셨던 어머니는 그렇게 영적인 생명을 알게 해주시고 본향으로 돌아가셨다.

그 이후 나는 약 2년간 진료와 강의를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의료의 행위가 무엇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끊임없이 맴돌게 되었다. 그러다가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대학원'을 알게 되었고, 나는 미련 없이 밴쿠버행을 선택하게 되었다.

벤쿠버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기독교적 의료를 추구하는 지금의 효산의료재단 삼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기독교 세계관적 의료는 이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의료현장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지난 20여년 동안 고민하며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 개념이나 구호로서의 세계관이 아닌 아주 현실적인 힘이 된다. 수술을 하다 보면 위기의 순간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이럴 때는 침도의의 평소 신념과 기술과 심리의 상태가 아주 중요하다. 스킬은 이미 전문의 정도가 되면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나는 그 창조의 동역자로서 이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 나를 훈련시키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실수 없이 마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기독교 세계관은 단지 의사의 감정을 위로하는 데 그치지만은 않는다. 그것은 의료현장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라보는 도덕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준다. 최선을 다했지만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도 “이 합병증이 통계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속에 있는 건가?” 혹은 “법적 문제 없이 설명할 수 있을까?” 등을 질문하지 않는다. 기독교 세계관은 환자를 법적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겁을 먹고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진지하게 진실을 말하고 대처해 나가는 도덕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1) ‘완화진정치료’는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환자의 의식 수준을 조절하는 치료이다.

또한 기독교 세계관은 의학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 자체를 새롭게 정의한다. 말기 암환자의 경우 통증의 완화를 위해 ‘완화진정치료¹⁾’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환자가 더 이상 고통을 호소하지 않고 조용해진 상태가 성공적 치료라고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적인 성공의 정의는, 치료 과정 중에 환자의 존엄이 끝까지 존중되었는지, 치료가 생명을 도구화하지 않았는지, 의료진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돌보는 자로 남았는지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상적인 지향점만은 아니다. 실제로 치료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인 깊은 성찰은 더 나은 의료적 방법을 찾아가게 해주는 원천이 된다.

오늘도 질병과 치유, 진단과 치료 사이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실질적인 사고의 틀을 제공해 준다. 날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부터 생수 공급을 받으며, 진료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의료현장은 매일매일이 창조의 날들처럼 늘 새로운 사건들의 연속이다. 날마다 새로운 현장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세계관의 틀이 있기에 오늘도 진료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FAITH & LIFE

 글쓴이 최현일

현재 효산의료재단 삼병원 의학원장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국제 생활습관의학 전문의이다. 연세대학교 겸임교수이며, 연세대학교 원주 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로 섭기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묻는다 : 인생은 무엇인가?

박은찬 (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역사적으로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논의 되던 주제이다. 사람들이 스크린을 통해 인공지능을 접하기 전부터 학자들은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대해 논했다. 현대 인공지능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논문¹⁾들이 1940~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만큼, 이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학자가 차근차근 쌓아 올린 기술이다.

큰 틀에서 본다면, 인공지능은 인간 뇌의 신경망을 모방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신경망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 프로그램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학습시켜, 작동에 필요한 정보를 채워 넣음으로써 비로소 모델이 완성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인공지능 서비스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개된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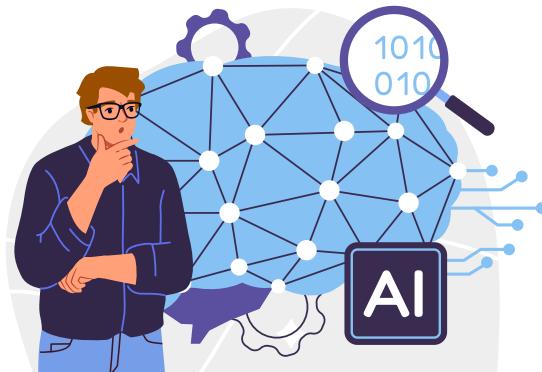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도전장을 내민다. 하드웨어는 기계에 밀리더라도, 사고나 창작 같은 소프트웨어만큼은 인간이 절대 우위를 점할 것이라 믿었던 생각은 인공지능 앞에서 무색해졌다. 인공지능이 작성한 과제를 인공지능이 채점할 것이라는 농담이 더는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 현실은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음을 실감하게 한다. 인간이 인공지능에 완전히 대체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극단으로 치닫는 경쟁 속에서 피로와 허무

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움을 넘어 심지어 마땅해 보이기까지 한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의문을 던진다. 기술이 인간의 무언가를 계속 대체해간다면, 인간에게 남아 있을 것이 무엇인가? 애초에 인간에게 대체 불가능한 고유함이 있거나 한 것인가? 만약 인류가 목적 없이 우연히 여기까지 훌러온 거라면, 고유함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은 인간이 이 이상으로 훌러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인간은 무엇인가? 그 수많은 인간 속에 있는 하나의 인생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이 거대한 질문들에 맞서 모두를 설득할 만한 대답을 내놓을 능력은 없다. 그런 시도를 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 그저 하나의 인생으로서, 내 삶이 의미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납득할 만한 답변을 찾아볼 뿐이다.

기술의 발전을 보면, 어쩌면 이제는 인간 안에서는 인간다움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나는 기술의 흐름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계속되는 인생에서 인간다움을 발견한다. 비록 인공지능보다 부족하지만, 아직도 기보를 공부하며 최강자에 도전하는 바둑 기사들이 있다. 비록 인공지능보다 느리지만, 아직도 단어를 꼽씹으며 탈고를 하는 작



가들이 있다. 여전히 손끝으로 건반을 누르는 피아니스트도 있다. 봇칠을 덧대는 화가도 있다. 땀을 흘리는 육상선수도 계속 있다. 이 모든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여전히 그들을 보기 원하는 관중, 즉 그들의 밖에 있는 관찰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나는 인생의 의미가 인간 밖의 관찰자로부터 온다는 생각을 한다. 인생의 모든 구석을 남김없이 감상해 줄 절대자가 인생에 의미를 불어넣어 준다고 본다. 우리를 만든 신은 언제나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며 소통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신은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베풀었고, 인간은 그것을 영혼이라 부른다고 생각한다. 이 영혼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남아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라 불리는 절대적인 신이 인간에게 건네는 연서처럼 느껴진다. 이 절대적인 신이 쉬지 않고 당신을 지켜주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제는 자신과

함께 행복을 누리자고 고백하는 것 같다. 이러한 심정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시편 33편 13-15절에 이런 시가 나온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
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들을 굽어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살피시는 이로다

만약 인공지능이, 아니 이 시대가 기술을 휘두르며 나에게 인간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신의 걸작품이다.”라고 답하겠다. 인생들이 저마다의 작품이 되어 신에게 상달되고 있다고, 신이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의미가 훌러넘친다고 답하겠다. 인생은 절대자를 향한 한 편의 글, 한 폭의 그림, 하나의 안무, 유일한 공연, 사랑받는 작품이라고 답하겠다.

“당신은 걸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립니다.” FAITH & LIFE



 글쓴이 박은찬

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포항에 소재한 한동고등학교, 한동대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연구 분야는 네트워크 보안이며 네비게이토 선교회에 몸담고 있다.

1) McCulloch, W. S., & Pitts, W. (1943). A logical calculus of the ideas immanent in nervous activity. *The bulletin of mathematical biophysics*

Turing, A. M. (2007).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In *Parsing the Turing test: Philosoph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quest for the thinking computer*

AI 시대를 신앙으로 읽어내는 일

한설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석사과정)



스마트폰을 잠시만 들여다보아도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뉴스와 영상, 게시물들은 우리의 관심과 취향을 정확히 겨냥하며 끊임없이 소비를 요구한다.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무심코 훌려보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이러한 질문은 AI 기술이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온 지금, 더는 추상적인 고민이 아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며 AI를 공부하는 동안, 기술의 변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실감하게 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목받지 못하던 연구 분야가 사회 전반의 흐름을 바꾸고,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기업이 짧은 시간 안에 중심에 서는 일도 더는 낯설지 않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래서인지 AI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나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질문은,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보다 “이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이다.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나는 기독

교적 AI 리터러시를 기술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로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적 AI 리터러시는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능력이기보다, AI가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를 끝까지 묻는 태도에 가깝다.

사람이 만들어 낸 기술은 아무리 복잡하고 정교하더라도, 그 본질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인간의 이해와 설계 안에 머문다. 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신비와 깊이를 쉽게 다 헤아릴 수 없다. 사람은 AI가 지닌 빠른 연산과 추론 능력을 없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는 영감과 창조성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는 존재이다. 기술은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는 통로가 된다.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따뜻함과 사랑은 어떤 기술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사람을 향한 관심과 존중이 그보다 앞서야 한다는 기준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이해 위에서 오늘의 AI 시대를 바라보면, “기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것은 바로 “이 기술을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AI가 만들어내는 속도와 효율의 논리가 점점 더 강력해질수록,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기준은 오히려 더 쉽게 밀려나기 때문이다. 기술은 스스로 목적이 되기보다 언제나 사람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이 기준은 더욱 분명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AI 시대에 요구되는 리터러시는 기술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능력에 앞서, 그 기술이 향해야 할 방향을 분별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에 가깝다.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기준을 어디서 배우고 있는가. 그 답은 연구실이나 강의실에서보다, 캠퍼스에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지체들과의 교제 속에서 더 분명해진다. 전공과 진로,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솔직한 고민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 속에서, 나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능력보다 먼저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운다. 효율과 성과가 기준이 되기 쉬운 환경 속에서도, 한 사람의 고민과 선택이 담긴 과정은 결코 결과로만 평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교제 속에서 자주 깨닫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AI 시대에 요구되는 빠른 판단의 논리 속에서도,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를 다시 불잡게 해 준다.

이 기준은 캠퍼스를 넘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분명해진다.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조건 없는 사랑과 섬김은, 성과와 효율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 쉬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점점 더 수치와 결과로 설명되기 쉽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여전히 한 사람의 존재가 성과 이전

에 존중받아야 함을 배운다. 누군가의 능력이나 유용함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먼저 환대받는 경험 속에서, 나는 왜 AI 시대가 될수록 사람을 향한 기준이 더욱 중요해지는지를 몸으로 깨닫게 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천히 배워가고 있다.

이러한 고민과 배움을 통해, 나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금씩 분명히 깨닫고 있다. 기독교적 AI 리터러시는 더 많은 기능을 알고 더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기술이 만들어가는 세계 속에서도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그 사람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끌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에 가깝다. AI 기술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나갈지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할 기준은 분명하다. 기술을 통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시대일수록, 나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더 깊이 묻고 싶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신앙으로 세상을 읽고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준히 살아가고 싶다. FAITH & LIFE

글쓴이 한설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석사과정 졸업 예정자이며, 같은 대학교 디터사이언스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을 앞두고 있다. 학부에서는 전자공학을 전공하여 학부, 석사, 박사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전공 공부를 이어 왔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다.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송예민 (극동방송 아나운서 겸 PD)



초등학교 졸업 후, 성경을 교과목으로 삼는 기독 대안학교에 진학하였다. 내가 재학했던 학교는 비인가 대안학교였기에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고, 이후 인도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였다. 인도 대학 출신이라고 하면 많은 분이 놀라곤 하는데, 이는 혼자 인도로 유학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종종 부모님이 인도 주재원으로 함께 거주하셨는지 묻기도 하지만, 나는 홀로 유학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대안학교 선배들 가운데 이미 인도 대학에 진학해 학업 중이거나, 학위를 마친 뒤 현지에서 취업한 분들이 있었기에 낯선 나라에 대한 두려움은 크지 않았다. 또한 당시 함께 공부했던 대안학교 친구들과 함께 유학을 떠났기에 서로 의지하며 유학 생활을 무사히 마쳤다. 물론 문화, 언어,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새로웠지만, 나의 세계관을 확장해 준 귀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영어와 힌디어는 물론 각자의 출신 지역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인도인들을 보며 언어는 힘들게 배우는 교과목 중 하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의 도구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인도에서의 대학 생활을 통해 북방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다. 대학 동기들 가운데 티베트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유를 찾아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위치한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곳으로 티베

트 고원과 히말라야산맥을 넘어온 이들이었다. 1959년 중국의 티베트 점령 이후, 달라이 라마 14세가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로 망명하면서 티베트 망명정부(티베트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인도 정부의 보호 아래 수립된 이 망명정부는 지금도 티베트의 정체성과 문화, 종교를 지키며 자치와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 특별히 티베트 출신 동기들의 얼굴에 남아 있던 곰보 자국은 자유를 찾아오는 혐난한 여정을 보여주는 흔적으로, 반복된 동상으로 인해 남겨진 상처였다. 이들을 통해 탈북민들이 자유를 찾아 두만강을 건너 한국으로 오는 여정을 떠올리게 되었고, 통일에 대한 소망과 함께 북방선교에 대한 비전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울러, 현지 기독교 NGO에서 합창단 반주자이자 음악 교사로 봉사하였다. 처음에는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가 더 컸다. 현지인으로 구성된 합창단원들과 교제하며 힌두교 인구가 절대다수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은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였고, 그들의 삶을 통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볼 수 있었다.

학부를 마친 후에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과정에 진학하였다. 인도에서의 유학 경험을 살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 조교로 근무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한–인도 양자 협력사업을 담당하였다. 대인도 전문가 세미나와 정책협의회 등을 기획·운영하며 한–인도 산업 정책과 기업의 인도 사업 전략을 지원했고, 학문적 연구가 실제 정책과 현장에 연결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는 내가 배운 것을 사회와 국가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한 중요한 배움의 장이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대학교는 학부(국제) 예배와 대학원 예배로 나뉘어져 있는데, 나는 대학원 예배 구성원으로서 섬기는 사역자와 교수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삶에 대한 조언뿐 아니라 치열하게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깊었던 시기에 기도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석사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졸업 이후에도 서울대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이어 가며 취업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는데, 주님의 봄된 공동체를 통해 인생의 가장 중대하고 연약한 순간에 힘과 용기를 얻었다. 아나운서의 꿈을 이루기까지는 약 2년 시간이 더 걸렸다. 석사과정을 마칠 무렵,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어 왔던 아나운서의 꿈을 향해 전진했다. 아카데미에 등록해 발성과 호흡, 뉴스 리딩 연습, 카메라 앞에 서는 훈련을 하였고, 이후 수많은 채용과정을 거치며 주변의 성취와 나 자신을 비교하기도 했고, 나 자신을 의심하기도 했다. 또한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여러 번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셨다. 말씀을 통해 내 생각과 마음을 불들어 주셨고, 기도의 자리에서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셨으며, 서울대학교 공동체를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인

도해 주셨고, 때에 따라 여러 돋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 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 그 시간은 단순히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함을 돌아보고 겸손히 무릎 끓고 나아가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 동시에 “방송을 통해 무엇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분명히 세워가는 연단의 시간이기도 했다.

극동방송 아나운서로서의 사역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자리이다. 방송 원고 한 줄, 멘트 한 문장, 친양 한 곡이 영혼을 살린다는 책임감을 갖고, 마이크 앞에 설 때마다 단순히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 주님께서 사용해주시기를 늘 기도 한다. 아나운서로 뉴스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PD로서 기획과 제작에 참여하며 한 편의 방송이 완성되기 까지 수많은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보게 된다.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은 특별히 교회에 직접 나오기 어려운 성도, 고난과 외로움의 한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복음을 직접 전하기 어려운 북한과 중국, 몽골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기에 주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싶다. 돌아보면 나의 모든 삶의 결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리고 완벽한 계획안에 있었다. 대안학교에서의 신앙 훈련, 인도 유학과 대학원 생활, 그리고 지금 맡겨 주신 방송선교 사역까지 어느 하나 우연이라 말할 수 없는 여정이었다.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리며, 앞으로의 삶 또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송예민

극동방송 아나운서 겸 PD로 현재 목포지사에서 근무 중이다. 인도 국립 자와하랄네루대학교(Jawaharlal Nehru University)에서 중국어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중국지역학 전공) 석사과정을 마쳤다. 서울대학교에 출석하고 있다.



존재만으로도

우미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존재만으로도 아름답다, 귀하다, 충분하다...

그 의미에는 동의하지만 막상 성과주의 사회에서 이 가치를 실천해오기란 쉽지 않다. 대학을 졸업한 후 기독교 대학 교목실에서 간사로 일했을 때도, 이후 병원의 국제개발협력 사업팀에서 근무했을 때도, 대학원에 들어온 지금도 어려운 건 매한가지다. 3년이 넘는 간사 생활은 실제로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지만, 이력서를 쓸 때면 이 경력이 과연 도움이 될까 걱정했고, 면접에서 관련 질문이 들어올 때면 설명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다. 그다음에 들어간 회사에서는 이미 개발·협력 경력이 한가득한 실력자들 속에서 위축되기도 했고, 업무를 따라가느라 혼자 몰래 회사에 나와 밤낮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현재 대학원도 약자를 돋고 싶다는 마음에 한껏 기대를 품고 진학했지만, 너무나 명석하고 성실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이곳이 내가 들어올 곳이 맞았나 의심하기도 했다. 이렇듯 여태 내 삶은 어떻게 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일지, 나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아등바등 살아온 가치투쟁의 연속이었다.

지난 봄, 한 사역자 친구에게 이런 고민에 대해 나눴

고, 그 친구는 나에게 생각을 전환하는 대답을 해줬다. “존재 자체에 힘이 있어. 존재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오직 하나만 가능해. 어떤 사람이 어느 장소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매우 귀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장소의 분위기는 바뀌어. 그게 존재의 힘이야. 네가 무엇을 해냈는지와 상관없어. 네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곳은 예전과는 다른 곳이 된 거야.” 이 대화의 잔상이 계속 내 안에 남았다. 그리고 보면 성과와는 별개로 누군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공간과 공동체는 항상 영향을 받았다. 어렵잖이 인지하고 있던 존재의 힘이 진심으로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 또한 내가 무언가를 질해서 일이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 남들이 보기엔 운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가득했다. 하나님은 적재적소에서 재정으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그때마다 제공해 주셨다. 이렇게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분의 도우심은 아주 세밀한 곳에까지 뻗어 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거나 쟁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었다. 그래서

지를 주었다.



인지 내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그 안정감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다. 대학원도 마찬가지다.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뚜렷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은혜로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내 인생이 언제나 그랬듯 조금씩 보여주시는 뜻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내 삶의 그림이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을 기대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는 왜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치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이 답에 대한 실마리는 이번 겨울 참석한 한 기독교 특강에서 얻을 수 있었다. 강연 속 목사님께서는 현대 성과주의 사회에 안타까움을 드러내시며 존재적 가치를 강조하셨다. 핵심 내용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이 우리의 자격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랑을 지금의 생활과 연결해보지 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가치의 근거가 내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의 자기증명의 압박 속에서 조금은 자유할 수 있는 여

그럼에도 나를 포함한 요즘 청년들은 진로나 사회생활에 대한 고민이 매우 많다. 청년들은 매번 나를 증명해야 하는 삶에 피로를 느끼지만 그 굴레에서 쉼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앞선 내용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에 이미 힘이 있고, 성과에 상관없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면 좋겠다. 가치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빛과 소금은 존재만으로도 밝게 하고 짜게 한다. 빛을 무지개색으로 아름답게 만들지 않아도, 소금에 미네랄과 온갖 좋은 성분을 추가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그곳에는 이미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듯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있는 곳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바쁜 자기증명의 세상에서도 조금의 안식을 누리며, 우리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다. FAITH & LIFE

글쓴이 우미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서울대 기독대학원생 독서모임 멤버이고, 베이직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다.



기독교적 AI 리터러시를 고뇌하며 ‘참을 수 없는 해석의 가벼움’ 넘어서기

추태화 (이례문화연구소 대표, 전 안양대 교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이다. 속도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 변화를 체감하며 내적으로 소화하고 적응하기에 너무 빠르다. 30년이 한 세대(Generation)라는 인식은 구시대적이 된 듯하다. 자고 나면 새로운 공식과 기술이 생활의 중심으로 등장하다 보니 X세대, Y세대, Z세대, MZ세대 등등 세대 구분조차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와 함께 <다음 세대>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었으니 이른바 리터러시(Literacy) 문제이다. 일찍이 대학 수학 영역에서 입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기에 기초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입학생들을 개학 전에 소집하여 기초수학을 가르치는 사례까지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수학에 그치지 않고, 문장 독해 및 해석과 이해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국어와 독서 영역에만 해당하지 않고, 지식 정보와 문화 및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전반적인 텍스트(Text) 문해력에 현세대가 심각한 결핍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일상이 된 영상(Visual) 환경이 다음 세대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해석의 가벼움’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의 속도는 눈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고, 더구나 내면과 정신이 해석하고 수용할 여지 없이 또 다음 장면이 계속된다. 미디어는 미디어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속도와 장면 이동으로 대중을 유혹한다. 대중은 어쩌면 이런 현상을 통해 현실에 적응한다고 자부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상은 현실의 중압감에서 도피하거나 자아를 잊으려는 몰자아의 한 병적 현상일 수 있다. 현대 문화의 속성 중 하나는 자기 상실에의 미혹이다. 점점 퍼져가는 ‘자기 부정’(Self-denying)이다. 이 현상은 현대인에게 거의 중독처럼 다가와 말초적 자기만족 욕망을 쉽게 버릴 수 없게 만든다. 지금 모든 세대는 ‘숏폼’에 과몰입되어 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리터러시가 점점 멀어지는 중일까.

우리는 지금 아날로그 시대를 벗어나 디지털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디지털은 이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이다. 게다가 모바일 환경에서 단 하루라도 격리된다면 사람들은 금단 현상을 참지 못할 것이다. 아날로그 시대의 독서나 언어 활동은 고인돌 시대의 구습처럼 취급받는다. 종이는 박물관 전시물이 되어가고 전자책, 전자신문, 전자도서관 등,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간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지식이 종이에 기록되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단지 부호로 남는다. 인간의 따스한 숨결과 영혼은 차디찬 반도체 디지털 슈퍼컴에 무생물로 집적된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인류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대전환을 맞는다. 리터러시 구성, 내용과 소통이 디지털 대세로 전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I가 거대한 쓰나미를 몰고 온 것이다! 끝내 막강한 지배자 인공지능이 도래한 것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도전 앞에 서게 되었다.

AI는 더는 특정 산업이나 기술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사고, 판단, 노동, 관계, 심지어 종교와 신앙의 언어, 실천 방식까지 깊숙이 스며들며 삶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비인간화(Dehumanization)를 겁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희망의 비전을 구축 중이다. 격변의 파도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결단해야 한다.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기독교적 AI 리터러시’를 고뇌해야 한다.

‘기독교적 AI 리터러시’란, 단순한 기술 이해를 넘어 인간 이해와 신앙적 분별을 촉구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예수 제자(Nachfolge)의 삶이라면 무릇 세대를 간파해야 한다. 즉 시대의 정조와 현상을 바로 이해 할 수 있는 ‘문화 리터러시’(Cultural Literacy), 문화 해석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시대 분별력은 바울 사도가 강조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엡 6:11, 13) 중 하나라고 본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엡 6:14-17) 외에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면 그 ‘문화 리터러시’, 즉 ‘AI 리터러시’ 아니겠는가.

‘기독교적 AI 리터러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AI를 선악의 이분법으로 단순화하거나, 무비판적 으로 수용하는 태도 모두 위험하다. 성경은 기술 자체를 죄악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언제나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과 방향성이었다. 바벨탑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중심이 되려는 인간 욕망의 문제였다.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AI 활용법’ 이전에 ‘인간 이해의 회복’이다. 인간은 어떤 알고리즘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존엄과 책임을 지닌 존재다. AI는 계산할 수 있지만, 회개

하지 못하고, 고통을 대신 짊어지지 못하며, 사랑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지 못한다. 이 한계에 대한 분별이 곧 ‘기독교적 AI 리터러시’의 핵심이다. 아날로그, 디지털 그리고 AI로 변화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인간은 언제나 “인간”으로 남는다.

인간이 고도의 기계를 장착하여 트랜스휴먼이나 휴머노이드처럼 변한다 해도 그 본질은 ‘하나님 형상’(Homo Imago Dei)이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흙의 본질에 하나님 영이 가미된 신비한 존재이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다(시 146:4). 그러니 결코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는 유한하고 죄로 물든 인간이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학(Anthropology)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한다면, 곧 성경에 뿌리내린 ‘기독교 세계관’에 겸손히 서 있다면, ‘기독교적 AI 리터러시’는 ‘예언자적 상상력’(Prophetic Imagination)으로 가미된 역동성을 갖추게 되리라. 온갖 우상화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말씀을 따라 AI 시대 영성을 훈련하고 무장해야 한다. 말씀이 정하신 경계를 순종함으로 지키고, 말씀이 허용하신 범주와 그리스도의 지혜로서 AI를 다룬다면 건강하고 균형 잡힌 리터러시의 지혜를 활용하여 혼란한 시대에 “빛”을 비추게 되리라? FAITH & LIFE



□ 글쓴이 추태화

이례문화연구소 소장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고, 은퇴할 때 까지 안양대 기독교문화학 교수였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AI 미디어 예술, 창조의 ‘연장’인가 ‘대체’인가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명예교수)

인공지능(AI)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급부상하며, 시각예술 분야는 AI에 대한 논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018년 AI 예술 단체 오비어스(Obvious)의 <에드몽 드 벨라드의 초상>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예상가를 크게 웃돌며 낙찰되자 미술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AI의 결과물이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작품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며 전통적인 가치 평가 기준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1만 5천 점의 초상화를 학습한 GAN(생성적 적대 신경망) 알고리즘이 내놓은 이 결과물은 “과연 기계도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물음은 레픽 아나돌(Refik Anadol)의 작업에 이르러 ‘AI의 창조성’이라는 화두로 더욱 확장된다. 그의 대표작 <기계적 환각>(Machine Hallucination)은 수백만 장의 도시, 자연, 우주 이미지를 학습한 AI가 생성해낸 거대한 시각적 장면을 재료로 삼는다. 관객

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직조해낸 가상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단순한 디지털 비주얼을 넘어 오늘날 기술문명의 정서를 압축해 보여주는 ‘시각적 사건’이 된다. AI는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 자연과 도시의 패턴, 빛의 흐름, 질서의 반복을 재구성하여 이미지를 드러낸다. 이에 따라 관객은 기계적 상상력의 힘을 빌린 영상 속에서 자연의 복잡한 질서와 우주의 패턴을 관조하는 듯한 경험을 하며, 이는 AI가 새로운 ‘표현 매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아름다움의 근원에 대한 차분한 성찰이 요구된다. 생성형 AI의 결과물은 기존 이미지 수백억 장에 나타난 패턴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조합한 통계적 계산의 산물이다. 즉 AI가 새로운 개념을 무(無)에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재배열(rearrangement)에 불과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작품 속 질서와 아름다움의 근



레픽 아나돌,
기계적 환각(레픽 아나돌 홈페이지)

원을 데이터나 기술 자체의 산물로만 이해한다면, 창조 질서를 창조주와 무관한 독립된 세계, 곧 ‘자기 완결적 시스템’으로 오해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아름다움의 원천이 기술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기독교적 인식이 흐려지고, 암도적인 이미지와 감각적 경험 자체에 매몰되어 실재(實在)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매 순간 다른 이미지를 생성하는 AI의 속성은 작품에서 특정 서사나 고정된 이미지를 소거한다. 관람자가 접하는 순간의 이미지가 곧 독자적인 결과물이 되는 이러한 유동성은 작품에 대한 고정된 해석을 거부한다. 최근 AI는 CG, 센서, 엔진 기술과 결합하여 관객들을 매료시키는데 벽과 바닥, 천장의 경계를 허무는 프로젝션 맵핑은 관객에게 미지의 공간을 유영하는 듯한 환상적 경험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해체는 특정 서사나 확고한 실재의 ‘부재’를 입증할 때이다.

아나들은 자신의 작품을 방대한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집단적 기억의 시각화’라 명명한다. 그러나 기계가 축적하는 데이터는 결코 인간의 기억을 대체할 수 없다. 기독교적 전통에서 기억은 단순한 데이터의 저장이 아니라 ‘관계’와 ‘언약’의 사건이며, 인격적 의미를 내포한다. <기계적 환각>의 화려한 시각적 패턴 속에서는 이러한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차이는 인간이 얼마나 ‘관계적 존재’인지를 드러내며, 진정한 아름다움과 창조성은 데이터가 아닌 관계와 언약 속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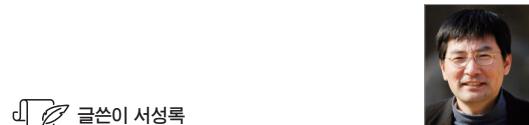
본질적으로 AI가 인간의 창작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몸’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립대학 연구진은 대형 언어모델(LLM)이 꽃과 같은 감각적 개념을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I는 장미 향기를 맡을 수도, 꽃잎의 촉감을 느-

낄 수도 없기에 “감각적, 운동적 경험 없이는 꽃이 무엇인지 그 풍부함 속에서 진정으로 표현할 수 없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방대한 정보체계를 갖추었다 해도, 감각할 수 있는 육체가 없기에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공감 또한 불가능하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해도, 그 이미지가 누군가의 고통, 기도, 눈물, 희망, 체험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온전한 의미의 ‘아름다움’이라 할 수 없다. 아름다움은 단순한 형태나 비율을 넘어선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규정했듯이, 예술은 인간의 조작이 아니라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아름다움과 질서를 재발견하고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AI 미디어는 다른 매체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아디아포라(adiaphora)의 영역에 속한다. 이를 ‘이마다 데이(Imago Dei)’로서 인간의 창조성을 확장하는 도구로 삼을지, 기술 자체를 덮어놓고 추종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AI 시대의 기독교 예술가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무조건적인 낙관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다. 예술적 창조는 단순히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의미’와 ‘방향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참됨, 사랑스러움, 미덕, 옳음(빌 4:8)과 같은 기독교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때, 인공지능 미디어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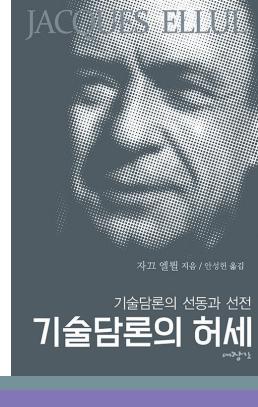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벌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인공지능과 ‘기술 담론의 허세’

이상민 (불문학교육 박사 / 실행위원)



〈기술 담론의 허세〉 / 자크 엘륄 / 도서출판 대장간 / 2023

자크 엘륄(Jacques Ellul 1912-1994)은 이미 20세기 후반에 첨단 기술을 비롯한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심각한 위기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경고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래서 엘륄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상가보다 현시대와 이 세상을 더 명확히 밝혀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기후 온난화, 환경오염, 물 부족, 열대 우림 소멸 같은 인간을 위협하는 전 세계적 환경 재난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자조작, 핵폐기물, 대유행 전염병 같은 많은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이 단지 기능장애나 역기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하고 깊은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다. 엘륄은 이 모든 현상을 대체로 예견하면서 근본 원인으로 ‘기술’을 듣다.

〈기술 담론의 허세 Le bluff technologique〉에서, 엘륄은 현대 기술 사회가 인간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정당화하는 담론, 곧 기술을 옹호하고 신성시하는 거짓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 담론’을 비판한다. 이런 거짓 이데올로기는 인간을 해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술 사회를 제시할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기술 사회를 제시한다. 특

히, 기술에 대한 지지자들은 기술을 통해 인간이 예전의 제약에서 해방되고, 예전에 할 수 없었던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며,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기술을 정당화하고 기술 사회가 인간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바로 이런 점에서 ‘기술 담론의 허세’가 존재한다.

엘륄은 인공지능과 달리 인간 지능에 있는 근본 특성으로 ‘상상력’, ‘즉흥성’, ‘포괄성’을 듣다. 첫째, 상상력이 없으면 인간 지능이 아니며, 선형적으로 인공지능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다. 둘째, 예상치 않은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이 불쑥 나타나고, 갑자기 확실한 진리가 떠오르며, 은밀한 사고 작용이 일어나고, 어떤 사고에 입각하여 엄밀한 지적 활동이 전개된다. 이와 같은 즉흥성은 전적으로 인간 지능에 속한다. 반면, 인공지능은 꿈으로부터, 길거리에서의 만남으로부터, 향수나 혹은 희망으로부터 오는 ‘즉흥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셋째, 인간 지능은 어떤 상황이나 관계나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나누어질 수 없다. 물론, 상황이나 관계나 문제 등은 분석될 수 있다. 하지만 분석을 통해 얻게 되는 이해 단위들을 모두 합

하더라도, 지적 파악에서의 ‘포괄성’은 결코 복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포괄적 지능에서 ‘분절된 것’을 완벽히 복원할 수 없다. 추억도 인공지능의 기억 속에 모두 저장될 수는 있다. 하지만 추억은 인공지능이 실행할 수 없는 어떤 경험에 의해 떠올려진다. 따라서 추억은 인공지능으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방식으로 배열되고 연계되며 전개된다.(301-302쪽) 그러한 인공지능의 한계는 인간 사고의 함양과도 관련된다. 인간 사고의 함양이란 체험을 시도하는 것이며, 이 체험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이 체험을 수록하는 것이다. 이는 상상력과 신화와 직관에 해당한다. 물론, 인공지능은 인간의 두뇌를 모방할 수 있지만, ‘우연’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인간의 두뇌는 신체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신체에 속해 있으며, 두뇌의 반응을 유발하는 것은 신체의 경험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의 사고를 함양하고 유발하는 꿈도 두려움도 욕구도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은 인간 두뇌에 이루어진 작용 중 하나를 모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결코 아니다.(303-304쪽)

물론, 엘륄이 지적한 인공지능의 한계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첫째, ‘상상력’과 관련하여, 고도의 상상력을 요구하는 예술 분야 특히 미술과 작곡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보조할 정도로까지 성장했으며, 인간을 능가하는 일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둘째, ‘즉흥성’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기술과 맞물려 인공지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는 것이다. 셋째, ‘포괄성’과 관련하여, 빅데이터와 맞물려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 지능 이상의 ‘포괄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인공지능도 수많은 학습을 통해 인간 이상의 ‘직관’을 가졌다는 것이다. 다양한 관습과 의사소통 중 일어나는 비언어적 요소를 데이터화하여 인공지능도 이에 대해 학습할 수 있고 실제 결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인간 지능의 특성 및 인공지능의 한계와 관련된 엘륄의 지적은 1980년대 말에 나온 것이기에 현시대와는 현격한 시대적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엘륄의 고찰은 현시대에서 인공지능 때문에 초래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 기술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기술의 합리성을 내세우는 기술 담론에 대해, 엘륄은 근본적인 비판을 가했기 때문이다. 기술의 순수한 합리성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언제든 비합리적 힘이 될 수 있고 온갖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엘륄은 기술 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적 진보에 대해 경종을 울리며 경고한 일종의 예언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상민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同) 대학원에서 불문학교육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역회’ 실행위원과 〈신앙과 삶〉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자크 엘륄의 저서 〈기술 세계〉를 번역했고, 엘륄 사상을 소개하는 저서들을 꾸준히 퍼내고 있으며, 프랑스에서 출간된 〈오늘날의 자크 엘륄 Jacques Ellul aujourd’hui〉에서 ‘한국에서의 엘륄 운동의 주동 인물’로 소개되었다. 저서로는 〈자크 엘륄,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 〈기술, 선전, 정치, 혁명〉,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1권, 2권〉(공저), 〈저출산,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나〉(공저) 등이 있다.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과학기술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

홍성욱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포스트휴머니즘의 전략과 기독교의 대응〉/ 임준섭 / CLC / 2022년

요즘은 어딜 가나 인공지능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그 이야기가 진부하게 들릴 일은 당분간 없어 보인다는 점이 신기하다. AI가 그간 불가능해 보였던 장벽을 하나하나 돌파하는 모습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너무나도 빠르게 우리네 삶에 안착했기 때문이라. 몇 년 전, 나는 AI에는 인간의 창작성이 없고, 고차원적인 문제를 푸는 능력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은 원하는 내용부터 음성 합성까지 모두 AI에게 맡긴 채 단편영화를 만든다. 나 역시 맡은 강의에 쓸만한 웬만한 문제는 모두 AI가 1분 안에 답을 내놓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핵 매운맛 문제를 ‘AI의 도움을 받아’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AI를 포함한 기계가 인간과 다른 점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스멀스멀 나타나고 있다. 이 사상, 즉 포스트휴머니즘은 휴머니즘에 의한 과거 서구 중심 역사가 ‘경계=억압/차별’을 만들었다고 판단해, 모든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관계성을 향상하려 한다. 즉, 인간의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고,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결국 인간과 비인

간의 융합을 추구한다. 이 모든 것은 과학기술이 끊임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과학주의를 밀바탕으로 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의 전략과 기독교의 대응〉에서, 저자는 포스트휴머니즘을 개혁주의 기독교(특히 신칼뱅주의)의 관점에서 비판한다. 우선 하나님과 피조물, 생물과 비생물, 인간과 비인간의 차이는 하나님의 정해주신 경계이기 때문에, 인간 마음대로 허물 수 없다. 오히려 성경은 죄의 본질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의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가르친다. 두 번째로, 과거 역사에서 나온 술한 억압과 폭력은 경계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포스트휴머니즘적 인간상은 생명도 윤리도 없다. 마지막으로, 포스트휴머니즘의 실현을 약속하는 과학주의는 신학과 철학, 심지어 과학기술 그 자체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빙약한 논리다.

대신, 저자는 신칼뱅주의 기독교가 경계/관계/균형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세상에는 각각 나름의 주권이 존재하는 수많은 영역이 있으며,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고선 한 영역 주권이 다른 영역 주권을 함

부로 침범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청지기로서 각 영역 간에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샬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계와 관계 중 어느 하나님 강조하지 않도록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경계만을 강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반대로 관계만을 강조하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기독교 교육 역시 이러한 경계/관계/균형을 잘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관,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이자 만물을 향한 청지기인 인간관 교육이 필요하며, 여기서 특히 가정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 번째로, 살롬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성경과 교수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 동시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다양한 영역을 기독교적·세속적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말고, 모든 영역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책은 과학기술문명의 발달로 인해 대두된 포스트휴머니즘이 지닌 문제점, 그리고 기독교와 기독교 교육이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시의적절한 답을 주고 있다. 특히, 과학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와 기독교 교육이 어떤 핵심 가치를 갖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몇 가지 개인적인 질문과 의견이 있다. 우선, 인간과 비인간의 융합을 추구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의 궁극적 목표에 동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미 내 세대에서는 〈공각기동대〉, 〈매트릭스〉 같은 수많은 영화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을 보여주고 있지만, 많은 이가 이를 불쾌해했다. 물론 이것이 대중에게 포스트휴머니즘을 노출시킴으로써 거부감을 줄이는 전략일 수는 있겠다.

두 번째로, 과학계에 종사하는 내 입장에서, “과학주의

는 철학적으로 빙약하다.”라는 주장이 그리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수 세기 동안 과학기술이 미친 급격한 파급력에 의해, 과학주의는 오히려 대부분의 철학 이론보다 현실에서 더 강력하게 느껴진다. 반대로, 과학주의에 대한 비판의 근원이 되는 철학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풍조도 있다.

세 번째로, ‘예배’가 무엇인지 좀 더 정확히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 개신교에서 ‘예배=설교 말씀’처럼 치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포스트휴머니즘에 춰야하다. ChatGPT 초기 버전이 나왔을 때 이미 〈AI 예수〉가 등장했고, 일부 교회에서는 목회자 없이 AI 설교자로 완전 대체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려면, 포스트휴머니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계/관계/균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 하려 했을 칼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도한 신정국 가 실험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폭력적이었고, ‘경계=억압’을 강화해 버린 것 같아 씁쓸하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조도 현실에서 성공하지 못한 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 이 책이 주는 도전이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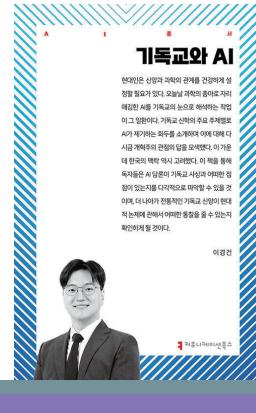


글쓴이 황성욱

한국전문연구원 이론전문센터 책임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ST) 교수이다.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우주론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2018~2020), 고등과학원 QUC 연구원(2013~2016), 충남대학교 박사후연구원(2011~2013)을 지냈다. 현재 대덕한빛교회 안수집사이며, 카이스트 기독교세계관 동아리 RACS 간사로도 섬기고 있다.

〈기독교와 AI〉에 대하여

남명현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기독교와 AI〉 / 이경건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25.

AI 시대가 도래했다. AI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이나 전문가의 도구가 아니라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다. 나아가 현대인들은 AI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이미 AI에 깊게 의존하고 있다.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제는 AI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렵다. 우리가 전기나 인터넷을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듯이 AI는 우리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다. 따라서 AI 시대는 단순히 과학기술의 발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틀, 세계관 자체가 변화된 시대를 말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독교와 AI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비판적 대화가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신학계에서는 기독교와 AI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기독교 입장에서 AI 시대에 답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논문과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전문적인 논의는 평신도 입장에서 쉽게 공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또한,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AI 전문가가 아니기에 AI 기술에 대한 물이해와 오해도 문

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AI를 연구하는 신진 과학자이자 신앙과 과학 간의 관계를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그리스도인이 저술한 〈기독교와 AI〉는 참 반가운 책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교회와 일상에서 AI 시대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단비와 같은 책이다.

이 책은 성경론부터 종말론까지 조직신학의 틀로 기독교와 AI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해석한다. 기독교의 핵심 주제인 '성경·하나님·인간·그리스도·구원·교회·선교·천국·종말'에 대한 신학과 AI의 교차점을 분석하고,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AI 시대 고찰과 신앙적 답변을 제시한다. 각 장은 대체로 (1) 해당 주제에 관한 기독교의 전통적 가르침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2) AI가 그 신학적 이론 또는 실제에 제기하는 문제를 소개하며, (3) 기독교적 입장에서 답을 모색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AI 층서라는 취지에 부합하게 AI 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을 다면적이고 입체적

으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1장) 성경 텍스트와 AI 언어 모델, (2장) 기독교의 하나님과 신에 비견되는 AI, (3장) 하나님과 인간, AI에 의한 창조, (4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닮은 AI, (5장) 인간이 되신 하나님과 AI 기술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 (6장) 기독교의 구원론과 트랜스휴먼 담론, (7·8·9장) 교회와 선교, 이웃 사랑을 위한 AI 활용 방안, (10장) 기독교 종말론과 AI가 초래한 종말론적 불안 등 중요한 신학적 주제와 AI 현상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각 장은 길지 않게 서술되어 있고 평신도를 대상으로 쉽게 쓰여 가볍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자가 저술을 위해 신학·철학·역사·과학·예술을 아우르는 폭넓은 자료와 다양한 서적을 참고하였기에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저자의 논의와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더 깊게 탐구할 수 있다. 특별히 이 책은 평신도를 위한 얇고 가벼운 책이지만, 저자의 AI 시대에 대한 분석과 기독교적 통찰은 깊고 진지하다. 그렇기에 AI 시대에 여전히 생수를 갈망하며 갈증을 느끼는 이들에게 이 책이 귀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책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칼뱅·개혁주의 신학이라는 다소 제한된 관점으로 AI 시대에 대한 기독교의 응답이 전개된 것이다. 칼뱅·개혁주의 신학은 기독교 신학의 고전적 모범이지만, 하나님의 교파 신학만으로 기독교의 응답을 고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대 복음주의의 다양한 조류가 어우러진다면 기독교의 응답을 조금 더 AI 시대에 적실하고 다채롭게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책이 칼뱅·개혁주의 신학을 견지하기에 전통적 교리에 비추어 AI 시대의 잘못된 조류를 바로잡아 주고, 그리스도인이 AI 시대에 취해야 할 성경적 기준과 선한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AI는 이미 우리의 세계와 세계관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이 침투를 눈에 보이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을 뿐, 실제로 AI는 오래전부터 노동, 교육, 경영, 행정, 예술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이미 기반 구조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AI를 써도 되는가?”가 아니라 “이미 도래한 AI 시대 속에서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다시 말해, AI를 어떤 기준과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준과 목적은 성경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AI가 사고·판단·창작의 영역까지 침투하는 현실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위협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AI 시대에도 우리의 세계와 세계관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현실을 발견해야 한다. 이 책은 AI 시대에 하나님의 현실을 발견하도록 안내하는 보물 지도가 되어줄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남명현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철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졸업했다.(B.A). 학부시절 서울대기독인연합(서기연)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대학총교회 전도사, 서울대 기독학생 북클럽 간사로도 섬기고 있다.

'교회학교 교육지도사 양성교육' 세미나



서울북노회 '교회학교 교육지도사 양성교육' 세미나는 서울북노회 교사교육원이 주관하는 다음 세대 리더십 훈련 과정으로, 교회학교를 실제로 책임질 평신도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역자와 교사 인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2박 3일 집중 교육과 이후 정기 사역 코칭 모임을 통해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한 부서를 맡아 이끌 수 있는 든든한 동역자를 길러낸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기독교 세계관이 있다. 절대 진리에 대한 불신과 가치 상대주의, 디원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에 다음 세대가 어떻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춘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함께 모색한다. 기독교 세계관 학술동역회 강사를 비롯해 기독교 교육, 유아 교육, 다음 세대 사역을 두루 경험한 강사진이 참여해 세계관과 교리, 교육철학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는 동시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과 프로그램 기획 노하우를 전수한다.

주요 강의는 기독교 세계관과 포스트모더니즘, 영유아와 청소년 발달 이해와 신앙 교육, 공과와 성경 교수법, 반 운영과 학생 관리, 관계 중심 전도, 선교적 관점의 교회학교 사역, 가정과 연계된 신앙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의 실제 등 교회학교 사역 전반을 입체적으로 다룬다. 더불어 소그룹 나눔과 실습, 사례 분석을 통해 각자의 교회학교 상황에 알맞은 교육 설계를 실제로 시도해 보도록 돕는다.

모든 교육생은 지원서와 담임목사 추천서를 제출하고 서류 심사를 거치며, 수료 후에는 서울북노회 노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고 현재 섭기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육지도사로 섭기도록 권면을 받는다. 이 과정은 서울북노회 산하 교회가 개혁주의 신앙 교육의 뿌리를 다시 세우고 지역 사회 속에서 공적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돋는 것을 중요한 비전으로 삼는다. 수료생들은 기수별 네트워크와 후속 모임을 통해 서로의 사역을 나누고 응원하며, 장기적으로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는 동역 공동체로 자라가도록 격려를 받는다.

이를 통해 각 교회는 한두 명의 헌신된 교사를 넘어, 교회학교 전체를 함께 책임지는 사역 팀을 세우는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결국 이 세미나는 교회학교를 다시 다음 세대 부흥의 전초기지로 세우는 하나의 실질적인 통로가 될 것이다. **FAITH & LIFE**



일산청암교회 담임목사이다. 원광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총신대 신학대학원(M.Div)을 거쳐 총신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Ph.D 사회복지학)를 받았다. 현재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서울북노회 교사교육원 서기로도 섭기고 있다.

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북노회

'교회학교 교육지도사 양성교육' 세미나 참가자 소감문



"서울북노회 '교회학교 교육지도사 양성교육' 세미나는 기독교 세계관과 개혁주의 신앙교육이 실제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숨 쉬고, 움직이고, 열매 맺을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해 준 자리였습니다."(참여자 A)

"무엇보다도 열정적인 교수님들과 실력 있는 강사님들의 강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뜨겁게 반응하던 교육생들의 눈빛과 표정이 서로에게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 속에서 흔들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통해 다시금 느끼며, 단지 주일학교 한 부서를 맡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사명으로 부름받았음을 가슴 깊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참여자 B)

"각 강의마다 탄탄한 연구와 풍부한 현장 경험이 녹아 있었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나 자신이 먼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가르치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참여자 C)

"처음 시도된 세미나였지만, 꼼꼼한 진행과 세심한 배려, 편안한 숙소와 풍성한 자료, 그리고 곳곳에 스며 있는 보이지 않는 섬김을 통해 여전히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눈물 흘리는 목사님들과 교수님들, 스태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깨우는 개혁주의 교육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설렘과 책임감을 안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갑니다."(참여자 D)

하나님께서 이 작은 시작을 통하여 서울북노회와 한국교회 곳곳에 신실한 교육 지도자들을 계속 일으키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또 다른 세대를 향해 더욱 담대히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참여자 E)

"이번 훈련을 통해 나는 단지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라 한 영혼의 세계관을 빚어 가는 '말씀의 장인'으로 부름받았음을 알게 되었고, 매 시간 개혁주의 교육의 길을 걷기로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배우고 기도했던 동역자들과의 연합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참여자 F)

서로의 교회로 돌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한 복음을 불들고 다음 세대를 세워 가기로 약속하며, 이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계속해서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참여자 G). FAITH & LIFE

로타 크라이식의 기독교 세계관(1) : ‘화해를 위한 평화봉사단’

최용준 (한동대학교 AI 융합학부 교수)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Lothar_Kreyssig

로타 크라이식(Lothar Ernst Paul Kreyssig, 1898-1986)은 바이마르(Weimar)와 나치(Nazi) 시대 독일의 기독 판사였다. 그는 소위 ‘T4 작전’(Aktion T4)으로 불린, 나치 독일의 우생학 사상에 따라 행한 장애인 안락사 정책에 대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다는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이를 반대한 유일한 법관이었다. 2차 세계 대전 후, 그는 다시 판사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그 대신 그는 독일이 침략한 국가들, 특히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위해 ‘화해를 위한 평화봉사단’(ASF: Aktion Sühnezeichen Friedensdienste)을 설립하여 진정한 성경적 화해를 시도했다.

‘화해를 위한 평화봉사단’은 나치 시대 독일 개신교회의 실패와 히틀러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되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화해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봉사단체로 1958년에 크라이식에 의해 창립이 추진되었다. 크라이식은 고백 교회 내에서 저항하면서 같은 생각을 하던 마틴 니묄러(B. Martin Niemöller, 1892-1984) 목사, 구스타브 하이너만(Gustav Heinemann, 1899-1976), 엘리사벳 슈미츠(Elisabeth Schmitz, 1893-1977) 및 프란츠 폰 험머슈타인(Franz von Hammerstein, 1921-2011)와 함께 전쟁 기간 중 교회의 실패를 언급하고 참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전후 독일교회와 사회는 나치 시대에 그들의 역할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생존자들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잔인한 상실하고 이전 이웃의 손에 굴욕을 당하고 탈출한 후의 삶에 관심을 두기조차 꺼렸다. 미하엘 보데만(Michael Bodemann)이 그의 책 <기념극장: 유대인 공동체 및 그들의 독일 이해 Gedächtnistheater: Die jüdische Gemeinschaft und ihre deutsche Erfindung>에 서 설명한 생존자의 꿈은 생존자의 갈망, 정확히는 용서에 대한 요청 등에 대해 알려준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공감의 기색은 없었다.

크라이식은 1954년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교회의 날 행사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으나 그의 호소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침내 1958년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독일 개신교회 총회가 서베를린-스판다우(Berlin-Spandau)와 동베를린-바이센제(Weissensee)에서 교대로 열렸다. 당시에 이미 동서독 분할이 완료되었지만, 독일 개신교회 총회는 여전히 독일 개신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총회였으며, 그 자리에서 서독 개신교회와 동독 개신교회 총회가 함께 토론했다. 이 총회의 마지막 날, 크라이식은 총회장으로서 화해를 위한 평화봉사운동 창설을 위한 호소문을 낭독하면서 전후에 태어난 독일 청년들이 이전에 독일이 침략했던 곳으로 가서 사죄와 평화를 구하면서 실제적인 사역을 통해 화해의 상징이 되자고 주장하였다.

그의 호소문에서 그는 먼저 독일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반역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몰살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한 살아남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고백했다. 나아가 그는 화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독일인들이 아직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그들이 13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라도 양심적으로 순전히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성과 관계없이 정말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러한 신념을 실천할 때 여전히 자기 정당화, 비통함, 증오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폭력을 당한 민족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땅에서 우리의 손과 돈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을, 정착촌, 교회, 병원 등 화해의 표시로 원하는 무엇이든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준 폴란드, 러시아, 이스라엘부터 시작합시다.”(Weiß, 1998: 455-456)

그러자 적지 않은 회원들이 이 호소문을 지지하고 서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정당화하며 큰 증오를 나타내면서 그의 제안을 유토피아적이고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크라이식은 함께 죄를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결과를 요구했다. 그의 겸비한 태도는 속죄의 개념을 온정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그는 참여하고 행동하며 대화를 통해 배우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1956년에 그가 처음 이 제안을 했을 때는 지지자들이 별로 없어 낙심할 수도 있었으나 절대 포기하지 않고 1958년에 다시 제안하여 적지 않은 동조자들을 얻었고 마침내 1959년부터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의 제안은 얼핏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전후 세대에게 호소하였고 그들이 자원하면서 이 사역은 시작될 수 있었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

또한, 그의 화해 사역은 당시 동독에서 개신교와 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연합 운동이었다. 이것은 당시에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크라이식이 마그데부르크에서 가톨릭 공동 의장인 퀸터 제르헨(Günter Särchen, 1927-2004)과 함께 일했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독일인이 그들이 침공한 나라의 국민과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역을 하면서 개신교도와 가톨릭교도가 협력하면서 화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다음호에 계속). FAITH & LIFE

 글쓴이 최용준

한동대 AI 융합학부 교수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B.A),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M.Div), 네덜란드 자유대학교(Drs.), 남아공 포체스투롬 대학교(Ph.D, 기독교철학)에서 공부했다. 독일 웰른한빛교회와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동대 학문과신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도 전하는 현대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강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학문〉 등이 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2026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제1차 정기총회 개최 안내

일시 : 2026년 2월 9일(월) 오후 7시 / 장소 : 남서울교회 비전센터 3층

안건 : 1) 2025년 결산 및 감사보고

2) 2026년 예산 편성안 및 2026년 임원 선출

3) 2025년 사업보고 및 2026년 사업계획안 승인

2026년 제1차 이사회 개최 안내

일시 : 2026년 2월 9일(월) 오후 4시 30분 / 장소 : 남서울교회 비전센터 3층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 30권 4호 (12월 31일 발간)

<신앙과 학문> 30권 4호에는 22편의 투고 논문 중 11편이 게재되었고 6편은 다음 호로 이월되었다.

31권 1호(3월 31일 발간 예정)의 논문 접수 마감은 1월 31일(금)이다.

제10회 기독청년학생 연합 북콘서트 개최 안내

주제 : “AI 시대, 인간이란?”(잠정적)

일시 : 2026년 2월 6일(금) 저녁 7:00 ~2월 7일(토) 낮 12:30

장소 : 서울대학교 사범대 10동 107호

책 나눔 : <포스트휴머니즘의 전략과 기독교적 대응>(임준섭)

초청특강 : 이경건 박사(단양공대 과학교육과 교수) & 이형주 박사(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강사)

주최 : 서울대 기독학생 북클럽, 카이스트 기독학생 북클럽(RACS)

후원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서울대기독교수협의회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동열(서울대 교수), 박영주(미드웨이스탄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최현일(삼성병원 대표이사),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은퇴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은퇴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박신현(고신대 교수), 임춘택(제주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김태황(명지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윤헌준(승실대 기계공학부 교수)

부총무 박지희(건국대 교수)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실 행 위 원 강은정(순천향대 교수),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고스서원 대표), 김미영((주) 에이블디벨로프먼트 대표), 김예원(VIEW 간사), 김혜정(CUP 대표), 문준호(휴비츠 프로),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이병주(기독법률가회 대표), 안승범(경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이재희(가천대 교수),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승실대 교수), 윤태형(동서대 교수), 장슬기(별무리학교 교사), 조예상(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교), 최용준(한동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손화철(한동대 교수, 기술철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동혁(연세대 교수, 구약학),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신웅철(승실대 교수, 서양철학), 손화철(한동대 교수, 철학), 안소영(경상대 교수, 국제경제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하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송재일(명지대 교수, 법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 VIEW(전성민 원장)

1)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 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VIEW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VIEW 기독교 세계관 Certificate: 1년 3과목 수강 (21세기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세계관적 육상과 설교, 일터와 기독교 세계관; 개별 수강 가능). 한국에서 6월과 11월 집중 대면 수업과 줌으로 이루어진 과정 (view.edu/cert 참고)
- VIEWtiful 인문학 과정: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인문학의 기초 역량을 줄 강의와 녹화본 강의로 제공하는 과정
(VIEWtiful.ca 참고)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CTC(유경상 대표)

- 청소년 하이세 아카데미(종강) : 주제는 '기독교세계관', 교재는 <크리스천 씽킹>(유경상, 카리스).

이번 학기는 기독교세계관 원리를 배우고,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했다.

- 월드뷰파밀리아카데미(종강) : 'C.S. 루이스 읽기'로 진행, <고통의 문제>를 공부했다.

- 대학 강의(종강) : 평택대 기독교세계관 MTS(신학석사) : <기독교세계관과 다음세대 교육>,

아신대 : <철학자들이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기독교세계관과 코칭>

- 평택대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기독교세계관 MTS 과정 4기 신입생 모집(12월 모집 중) : CTC 지도자 과정과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만든 신학석사 프로그램. 삶의 모든 영역과 사역 현장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정립, 분별하며, 현장에서 적용하기 원하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을 초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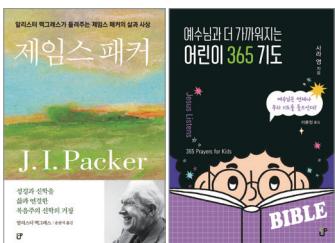
- 2026년 기독교세계관교육 지도자 과정 모집 중 : 기독교세계관 교육 원리와 실제를 위한 '6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 어린 이세계관교육 위한 '5기 기독교세계관 강사과정'을 모집한다

※ 문의 & 참여 신청: CTC 사무국(010-3673-8439),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

※ 2026년도에도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다음세대 세우기'를 목표로 하는 CTC 사역에 동역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신간 소식



〈제임스 패커〉 알리스터 맥그래스 지음 | 윤종석 옮김.

알리스터 맥그래스가 들려주는 제임스 패커의 삶과 사상.

제임스 패커는 삶을 위한 신학자로 불린 복음주의 신학의 거장이다.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마치 자서전을 쓰듯, 패커가 신학과 영성에 공헌한 많은 부분을 탐색한다. 신학과 목회, 지성과 경건이 분리되어버린 오늘날 그 둘을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는 깊은 지혜를 전해준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어린이 365기도〉 사라 영 지음 | 이윤정 옮김.

성경의 진리를 토대로 쓰여진중 365개의 기도문.

아이들에게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심어주며, 가족이 함께 신앙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익한 도구가 될 것이다. 성경의 진리를 토대로 쓰여진 365개의 기도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2025년 10월, 2025년 11월)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5년 10월	2025년 11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5년 10월	2025년 11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620,000	2,720,000	인건비	일반급여	4,855,000	4,855,000
	임원회비	1,170,000	590,000		기타급여	1,150,000	400,000
	일반회비	3,867,500	4,015,000		소계	6,005,000	5,255,000
	기관후원금	4,900,000	3,1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50,000	850,000
	월드뷰후원금	0	120,000		사무실관리비	468,518	435,990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150,050	147,910
	CTC후원금	60,000	60,000		우편료	119,840	3,040
	VIEW후원금	950,000	980,000		소모품비	16,800	4,800
	기타후원금	0	0		비품	0	0
	월보구독료	335,000	460,000		식비	275,900	296,800
	학술지원금	0	0		수선비	0	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529,020	509,340
	기타	200	0		퇴직연금	439,230	439,230
	소계	11,902,700	12,045,000		예수금	453,400	453,400
					회계용역비	55,000	55,000
					서무비	55,000	55,000
					기타(지급수수료)	123,912	123,560
					소계	3,536,670	3,374,070
기타수입	일반이자	0	0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841,310	881,200
	법인세환급금	0	0		소계	901,035	940,925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0	2,640,880
	기금차입	0	0		발송비	0	650,00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0	0
	예수금	477,290	477,290		소계	0	3,290,880
	소계	477,290	477,290	기타	세금	0	35,400
					잡비	300	300
					소계	300	35,70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1,044,500	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행사준비	0	0
	소계	0	0		세계관기타	0	0
					소계	1,044,500	0
학회	학회이사회비	170,000	140,000	학회	학회강사료	1,350,000	0
	학회행사수입	970,000	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683,000	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3,106,040	0
	학술지심사비	980,000	420,000		학술지인쇄비	2,604,300	18,000
	학술지게재료	830,000	510,000		학술지발송비	164,770	46,820
	저작권료	0	0		학술지심사료	1,060,000	0
	학회기타수입	900,000	0		학회기타	20,000	0
	소계	3,850,000	1,070,000		소계	8,988,110	64,820
전월 미수금	전월CMS입금	895,865	861,580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CMS미수금	861,580	920,810
	전월 이니시스 입금	30,000	50,00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50,000	10,000
	소계	925,865	911,580		소계	911,580	930,810
당월 수입액		17,155,855	14,503,870	당월 지출액		21,387,195	13,892,205
전월 이월액		16,807,042	12,575,702	차월 이월액 (잔액)		12,575,702	13,187,367

* CMS,이니시스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5년 10월)

5천 강대웅, 공승건, 곽도명, 구성덕, 권지연, 김경호,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웅, 김봉현, 김상욱, 김샛별, 김성우, 김성호, 김영주, 김정명, 김정심,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홍영, 김희원, 노승욱, 박광제, 범경철, 생명의강, 순영경, 송시섭, 신종철, 유충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제,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소연, 임현준, 장현정,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연무,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하선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순화정,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운재, 고철웅, 권경호, 길원평, 김경희, 김광태, 김국화, 김규우, 김남진, 김도형, 김동언, 김민성, 김병국, 김병운,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샛별, 김성규, 김성인, 김성찬,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영숙, 김영윤,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유리, 김윤경, 김은더, 김재정, 김정일, 김정준,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종철, 김지곤,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김희년, 김희영, 남상우, 남현우,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류화원,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명우, 박민규,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두산,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은희, 송철호, 신동일, 신성만,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심정연, 안석, 안승범, 양성건, 양성철, 양승규,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오유리, 오의석, 오주희, 유건호, 유기남, 유상원, 유상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웅래, 윤태현, 이경락,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진,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엽, 이시영, 이아름, 이연구, 이언의, 이요한, 이윤경, 이원준,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길, 이정일, 이종철, 이중섭, 장태준, 장창수, 장현우, 정예희,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유진, 정희원,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권,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주호영, 지의정, 차봉준, 차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영, 최용성, 최우성, 최은정, 최한빈, 최현식, 최혜경,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한동빈, 한신영, 한화진, 하연, 허현, 홍구화, 홍상인, 황기철, 황상준, 활성연, 황세현, 황혜숙,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2만 강석분, 강용란, 김보경, 김성준, 김용식, 김인수, 김정우, 김태진, 남선우, 박기모, 박흥식, 백운경,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건, 이기서, 이연우, 정훈, 채기현, 최현준, 2만5천 한윤식, 3만 고세일,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방운, 김성원, 김예원, 김용봉,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박영진, 박은호, 방은영, 배덕만, 서성록, 순화철, 신혜경, 엄고운, 이근호, 이수령, 이운실, 장동진, 전상홍, 정민, 조내연, 최동진, 최용준, 추명순, 홍지희, 황정진, 황혜원, 4만 문석운, 우병훈, 허정도, 5만 강다엘, 김종우, 김태훈, 김택호, 양승훈, 윤석찬, 윤현준,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6만 강진구, 석종준, 송종철, 이수진, 10만 김지원, 박영주, 순봉호, 신국원, 신영순, 윤완철, 이성현, 장수영, 12만 김민철, 김진하, 박문식, 소은희, 최태연, 15만 최현일, 50만 이재희,

계 7,122,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다운동체육회, 일원교회, 10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로고스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세로남교회, 새언약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아름빛교회, 예수향남교회, 종암제일교회, 천안아산주님의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흰돌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200만 할렐루야교회,

계 4,950,000원

전체 12,072,500원

회원후원

(2025년 11월)

5천 강대웅, 고한호, 공승건, 곽도명, 구성덕, 권지연, 김경호,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웅, 김봉현, 김상욱, 김샛별, 김성우, 김성호, 김영주, 김정명, 김정심,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홍영, 김희원, 노승욱, 박광제, 범경철, 생명의강, 순영경, 송시섭, 신종철, 유충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제,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성규, 임소연, 임현준, 장현정, 전보규,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연무,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하선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순화정,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운재, 고철웅, 권경호, 길원평, 김경식, 김경진, 김광태, 김국화, 김규우, 김남진, 김도형, 김동언, 김민성, 김병국, 김병운,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샛별, 김성규, 김성인, 김성찬,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영숙, 김영윤,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유리, 김윤경, 김은더, 김재정, 김정일, 김정준,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종철, 김지곤,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김희년, 김희영, 남상우, 남현우,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류화원,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명우, 박민규,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두산,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은희, 송철호, 신동일, 신성만, 신성숙,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심정연, 안석, 안승범, 양성건, 양성철, 양승규,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오시현, 오의석, 오주희, 유건호, 유기남, 유상원, 유상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계한,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웅래, 윤운정, 윤재림, 윤태현, 이경락,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진,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엽, 이시영, 이아름, 이연구, 이언의, 이요한, 이윤경, 이원준,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길, 이정일, 이종철, 이중섭, 장이연, 이진희, 이창우, 이창훈, 이하원, 이해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선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유진, 정희원,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권,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주호영, 지의정, 차봉준, 차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영, 최용성, 최우성, 최은정, 최한빈, 최현식, 최혜경,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한동빈, 한신영, 한화진, 하연, 허현, 홍구화, 홍상인, 황기철, 황상준, 활성연, 황세현, 황혜숙,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2만 강석분, 고선옥, 기민석,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우, 김태진, 남선우, 박기모, 박흥식, 백운경,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건, 이기서, 이연우, 정훈, 채기현, 최현준, 2만5천 한윤식, 3만 고세일, 권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방운, 김성원, 김예원, 김용봉,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박영진, 박은호, 방은영, 배덕만, 서성록, 순화철, 신혜경, 엄고운, 이근호, 이수령, 이운실, 장동진, 전상홍, 정민, 조내연, 최동진, 최용준, 추명순, 홍지희, 황정진, 황혜원, 4만 문석운, 우병훈, 허정도, 5만 강다엘, 김종우, 김태훈, 김택호, 양승훈, 윤석찬, 윤현준,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6만 김진구, 석종준, 송종철, 이수진, 10만 김지원, 박영주, 순봉호, 신국원, 신영순, 윤완철, 이성현, 장수영, 12만 김민철, 김진하, 박문식, 소은희, 최태연, 15만 최현일, 50만 이재희,

계 8,855,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다운동체육회, 일원교회, 6만 가톨릭대학교신학대학도서관, 김성원, 수원가톨릭대학교도서관, 호남신학대학교도서관, 10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로고스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세로남교회, 새언약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아름빛교회, 예수향남교회, 종암제일교회, 천안아산주님의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흰돌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삼일교회

계 3,330,000원

전체 12,185,0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주빌리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연구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샛별	홍콩대 심리학과 교수, 교육심리학, 오판이오주립대 Ph.D, 정회원
	김지원	백석대 교수, 물리치료학, 연세대 Ph.D, 실행위원장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휴비츠 프로,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이사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홍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종교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숭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바드대 로스쿨 석사, 실행위원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이사
	추태화	이례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셔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반석



김유준



김샛별



김지원



김혜정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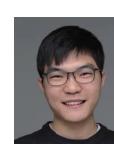
박홍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매월 직접 입금	<input type="checkbox"/>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주)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주)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

(인) 또는 서명

(예금주 또는 가입자)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논문 투고 안내

〈신앙과 학문〉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3월호(31권 1호)
투고 마감일은 1월 31일입니다.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입니다.
-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1996년 이래 발행하고 있으며
‘신앙과 일반학문’의 통섭을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등재학술지로
다양한 학제간 연구 논문을 모집합니다.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습니다.
-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하며 원고 마감은 각호 발행일 약 60일 전입니다.
(각호 투고 마감일: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 2025년 9월 22일자로 개정된 논문투고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 * 투고 규정 8.(3)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우 각주 예시 확인
 - * 투고 규정 10. 게재료 3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 40만원), 전일제 대학원생 15만원으로 게재료 인하, 심사료 7만원 신설
 - * 연구윤리규정 제5장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지침추가
 - * 논문 심사 세칙 제2조 (5)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다음 호에 재투고하여 재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세 안내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기독교학문연구회’ 항목을 클릭하여 참고하십시오.

일반 문의 gihakyeon@gmail.com(사무국, 학회) 02-754-8004

학술지문의 faithscholar@naver.com(투고, 심사) 02-3272-4967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